메트로 2014년 6월 12일 목요일 www.metroseoul.co.kr

아리랑 3호기 촬영한 브라질 월드컵경기장 18일 오전 7시 한국-러시아 국가대표팀의 예선 1차전이 치러질 브라질 쿠이아바 경기장 모습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1일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2, 3호가 촬영한 브라질 월드컵경기장의 위성영상을 공개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잠잠하던 이통사 보조금 또 '들썩'

번호이동 10일 10만건… G3·갤럭시S5가 '공짜'
주도업자 떠넘기기 공방, 방통위 대책 부심

"최신 스마트폰 LG G3·갤럭시S5가 공짜!"

45일간의 영업정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조사 소식에 다소 잠잠해지는 듯 하던 통신업계의 불법 보조금 전쟁이 또다시 시작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전체 번호이동 건수(MVNO 제외 기준)는 9만9655건으로 집계됐다. 이동사별로는 SK텔레콤이 4만1628건, KT가 3만940건, LG유플러스가 2만7087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통위가 시장과열로 여기는 일일 번호이동 건수 2만4000건을 4배 이상 넘어선 것이다.

이처럼 번호이동 건수가 급증한 것은 불법 보조금 살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에서 9일 저녁부터 10일 새벽 사이 최신 스마트폰에 1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6·9 대란' '6·10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출시된지 보름도 채 안 된 LG전자 최신 스마트폰 G3를 비롯해 삼성전자 갤럭시S5 등이 공짜폰으로 전락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달 20일을 기해 이동3사의 영업 정지가 모두 풀리면서 불법 보조금 살포 현황이 포착되자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나서면서 하루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2만건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9일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6만4206건, 10일에는 10만건에 육박하면서 또다시 통신시장이 불법 보조금으로 들썩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통신시장이 과열되자 방통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앞서 10일 이통 3사 마케팅 관계자를 불러 불법 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 확인에 착수했다. 최근 벌인 현장 조사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각사 임원을 소집해 책임을 묻을 예정이다.

특히 주도사업자를 면밀히 살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방침이지만 오히려 이통사는 경쟁사 탓이라는 비방만 일삼으며 면피성 발언만 하고 있다. 실제 6·10 대란 역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간 주도사업자 떠넘기기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LG유플러스는 "6·10 대란은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0%를 지키기 위해 9일 오후 8시께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발단 됐다"며 주요 모델별로 최대 110만~1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자 경쟁사가 대응해 시장이 과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지난달 29일 방통위의 사실조사 이후 시장이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다가 LG유플러스가 9일 방통위 감시가 느슨해진 오후 7시를 틈타 보조금 40만원을 추가 투입했다"며 "리베이트 수준을 계속 늘려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기습적인 불법 보조금 투입으로 견디지 못한 경쟁사들이 일부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이통사간 비방전 속에 일각에선 "이통사가 진정 타격을 받을만한 새로운 제재안을 마련해야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통위의 영업정지 제재는 이통사가 아닌 휴대전화 제조사나 영업점(대리점·판매점) 피해로만 이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징수나 영정 기간을 정해 이용자의 요금을 할인하도록 하는 대안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제재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적용되는 10월 이전까지 이 같은 현상은 되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2@metroseoul.co.kr

서울 초혼 15%가 '연상녀-연하남'

지난해 서울의 초혼부부 중 연상녀-연하남 커플은 15.5%였다. 이는 20년 전보다 6.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초혼부부 중 동갑 커플의 비율은 1993년 9.3%에서 지난해 15.8%로 늘었다. 여성이 연상인 커플은 같은 기간 8.9%에서 15.5%로 늘었다. 남성이 연상인 커플은 1993년엔 81.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68.7%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남성 평균 초혼연령은 32.6세로 20년 전(28.5)보다 4.1세 늘어났다. 여성도 30.4세로 20년 전(25.7)에 비해 4.7세 높아졌다.

특히 여성 혼인 중 30대 구성비는 47%로 20대(43.4%)를 처음 추월하기도 했다. 20년 전 20대 구성비가 83.8%로 가장 많고 30대는 11.3%에 불과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양상이다.

지난해 서울의 혼인건수는 6만8819건으로 20년 새 33.5%(3만4692건) 감소했다. 전체 혼인 중 84.9%는 초혼, 15.1%는 재혼이었다.

이혼은 2003년(3만2499건)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해에도 2만1226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2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mkim@

주한미군 우호증진위해 주한미군 장병들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태권도 발차기를 배우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가 군의 한국 군의 우호증진을 위해 마련된 한국문화 체험 행사의 하나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담뱃세 내년초 대폭인상 추진

보건복지부 WHO 권고 받아들이기로

정부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뱃세를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모든 나라가 담뱃세를 50% 인상할 경우 3년 안에 세계 흡연자가 4900만명 정도 줄고 흡연에 따른 사망자도 110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의 담뱃값(2500원)은 물가를 고려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담배가격 중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WHO 권고값(70%)을 밑도는 62%다. 또 담뱃값과 담뱃세는 OECD 최하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3%로 OECD 국가 중 1·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임 국장은 "기획재정부가 물가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만 담배 가격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등 정부 안에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다"며 "아직 논의가 필요하지만 가격을 상당 폭 올려야 효과가 있다.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초 국회에서 담뱃세 인상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 금연의 날 국내 기념식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문창극 총리 후보자 마지막 강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오후 마지막 강의를 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IBK커뮤니케이션센터 강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구, '국회 국가개혁특위' 신설 제안

세월호 후속 4대 입법 처리 촉구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수행할 기구로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시스템의 실패"라며 "대한민국 대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가개혁특위 산하에는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또 국회 개혁위에서 '그린 라이트(무쟁점법안 신속처리)' 도입, 국가원로회의 신설, 인사위 재개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논의해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시스템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눈앞의 정치적 공방에만 매몰됐다"며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국회가 반드시 4대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입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실시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 논란을 언급하며 "야당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힘 모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루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에 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hj

KB금융, 필사즉생 각오 다져야

기자 수첩

백아란 <경제산업부 기자>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

1597년 9월 명량대첩에 나선 이순신 장군이 군사들에게 던진 결사적 각오의 한 마디다.

최근 KB금융을 보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이 필사즉생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말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KB는 국민주택채권 위조와 카드사의 고객 정보유출 사고,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홍 등 잇따라 발생한 사건사고로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9일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장과 지주회장 모두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당장 리더십의 부재도 발생할 판이다.

특히 이날 금감원이 징계 수위를 통보한 금융사 임직원 2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0명 가량이 KB금융 임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경영전반에 걸친 역우 자질과 신뢰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수위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있겠지만 이미 LIG손해보험 인수 등 M&A 불발에 대한 우려와 경영 위기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리딩뱅크였던 KB금융이 사고뭉치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그간 KB가 내세웠던 신뢰와 혁신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경쟁력은 고객 신뢰 위에 꽃 핀다. 위기의 KB는 필사즉생, 죽을 각오를 해야한다.

뉴스&뉴스

정 국회의장 "朴 대통령과 '핫 라인' 개설"

●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도록 최근에 대통령에게 '핫 라인' 개설을 요청했고, 며칠 전 대통령의 핫 라인 번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의장은 국회와 청와대·행정부와의 소통 제고 문제를 언급하며 "내 충정에서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목소리가 있거나 대통령 또는 정부 청와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전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영사협정 정상회담서 서명

● 한·중 양국이 내달 초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 정상회담 때 영사협정에 정식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이를 위해 협정 체결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곧 국무회의 심의 등으로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은 체결과 동시에 발효될 예정이다.

예비군 소총 2017년까지 M16 교체

● 국방부가 1968년 예비군 창설과 함께 보급한 카빈총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 교체를 완료하지 못했다.

예비군 창설에서 사용된지 47년째가 되는 카빈총은 지금도 50%가량 사용되고 있다. 2017년 말께나 M16 소총으로 교체될 계획이다.

남경필 "연정 제안 관련 12일 여야 첫 회의"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은 사회통합 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자신의 연정 제안과 관련, "12일 여야 정식협의의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 당선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협의회에는 자신을 포함해 여야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 등 총 6명이 참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정 제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경기도당 위원장이 '그 정신은 좋다. 인사가 먼저가 아니라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제안했다"며 "열린 마음으로 저의 제안을 받아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통합 부지사뿐 아니라 정책연대가 가능해진다면 추가로 더 인사 권한을 야당에 드릴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 당선인은 "가능하다면 새정치연합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가 냈던 공약 중 좋은 공약은 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여야가 지난 대선 때 함께 주장했던 버스 준공영제,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 등이 좋은 협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치 실험과 정치 혁신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기득권을 버리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구원파 본거지 금수원 수색

유병언 도피 도운 신도 6명 체포… 핵심 '두 엄마' 검거는 실패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안성 금수원에 11일 검·경이 진입,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임모씨 등 신도 5명을 체포했다. 검·경의 수색을 방해한 신도 1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13분 40여개 기동중대 4000여명을 금수원 정문을 통해 투입해 1시간여만인 9시16분께 이들을 붙잡았다. 임씨 등은 유 회장의 도주자금을 확보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유 회장 도피의 핵심 조력자인 신엄마(64·여)와 김엄마(59·여)는 검거하지 못했다. 이들은 유씨 도피를 총괄기획한 계 마트센트럴라이프재단 이사장이 체포된 지난달 27일 이후부터 역할을 나눠 맡아 순천과 해남 지역 도피조를 총지휘하고 있다.

유씨의 오랜 측근 중 한 명인 속칭 신엄마는 김모(72·구속 기소)씨를 뒤에 잔해운 대표 자리에 앉힐 정도로 구원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유씨 일가의 재산관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칭 김엄마는 오래전부터 금수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으며 평소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주말마다 금수원 내에서 신도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등 구원파의 대모 역할을 해왔다.

수색과 관련해 조계웅 구원파 전 대변인은 "검찰은 세월호 참몰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하라"고 비난했다. 구원파 신도 심모씨는 "보다시피 영농조합일뿐이다. 간첩을 잡을 때도 이렇게 안 하는데 이건 명백한 종교탄압"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금수원 수색에는 경기·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 63개 중대와 정보형사 등 6000여명이 동원됐다. 또 물대포 11구조장비, 응급차량 등을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조현정기자 mjeon@metroseoul.co.kr

금수원 압수수색 11일 오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진입한 검찰과 경찰들이 압수수색 중인 대형 예배당 건물 앞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개만 더! 11일 오전 인천시 남구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4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에 참석한 응시자들이 윗몸일으키기 측정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까지 유기동물 절반 줄이겠다

서울시 동물복지계획 발표

서울시가 2020년까지 유기동물을 현재보다 절반 줄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날 반려동물, 유기동물, 길고양이, 사육·실험동물, 시민참여 유도 등 5개 분야 19개 핵심사업으로 구성된 '동물복지계획 2020'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립해 발표했다.

우선 74만 마리에 이르는 반려동물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현재 2곳에서 5곳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미리 진료비를 알려주는 '진료비 자율게시'를 서울시 수의사회와 협력해 추진하고, 2016년부터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중성화수술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1만1000 마리가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수를 2020년까지 5500마리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유기동물의 30%가 고양이인 점을 고려, 고양이도 동물등록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동물보호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민준기자

'짝퉁' 제조자 무더기 검거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가짜 명품 가방·지갑 등을 제조·유통하는 업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36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모(54)씨 등 5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위조상품 1만6849점(정품 시가 118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김씨는 3월 24일 남양주시 진접읍 다세대주택에서 짝퉁 지갑 4800여 점 등 정품가 기준으로 3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제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가짜 명품을 거래할 때 대포폰과 대포차를 이용해 서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윤다혜기자 yolo@

'해피아' 대표인물 이인수 소환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검 "피의자 신분"

억대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수(60)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이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이사장은 오전 9시 30분께 인천 남구 소재 인천지검 청사에 도착, 정문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민원실 쪽 출입문을 이용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횡령 자금의 용처와 정관계 로비 여부 등을 물을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해운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전 이사장을 비롯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해운조합 전 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기민호기자

항공기 화재 진압 훈련 11일 오후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김해공항 국제선 화물청사 계류장에서 열린 김해공항 비상대응 종합훈련 도중 한국공항공사 소속 소방차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항공기에 물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합참 "유병언 밀항 대비 경계 강화"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유병언 검거작전'에 군 투입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밀항에 대비한 감시·경계체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만약 밀항 상황이 발생하면 검경과 긴밀한 협조 및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서해안선 경계를 맡은 육군 부대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 등에 밀항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감시 강화 지시를 하달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군의 작전태세는 변함이 없다"면서 "평상시 거동 수상자나 밀입국 의심 선박이 있는지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서 관심을 기울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한 군에 유병언 일당 감시 임무까지 맡기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준기자

서울 신호등 5600개 철거

연 21억원 전력비용 절감

서울시가 운전자 안전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7월까지 불필요한 신호등 5600여 개를 철거한다고 11일 밝혔다.

2010년 신호등을 모두 LED형 신호등으로 교체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종로 일대에 있는 489개의 신호등 중 30개를 제거했고, 올해 5월부터 조정 대상을 시내 전체 신호등으로 확대했다.

LED 신호등은 기존 백열등보다 색상이 선명하고 밝아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소모 에너지도 백열등의 10분의 1에 불과해 연간 21억원의 전력사용 비용이 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김민준기자

방송통신대가 아이스크림 쏜다

오늘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키워드 검색하면~

한국방송통신대가 온라인 깜짝 이벤트로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12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한 시간 동안 네이버 검색창에 '방송통신대' 키워드를 검색한 후 방송대 홈페이지(www.knou.ac.kr) 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 이름 및 연락처 등을 남기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싱글레귤러 사이즈) 기프티콘을 선물할 예정이다.

방송대 정영호 대외협력과장은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기념해 때이른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깜짝 이벤트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송대는 다음달 16일까지 총 22개 학과에서 2014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자사고 평가 일정 늦추기로

새 교육감 취임 이후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존폐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새 교육감 취임 이후로 늦춰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시·도교육청 평가는 이달 말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시·도교육청 일정에 따라 유연성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 3월 전국적으로 자사고 25개교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3~4월 시·도교육청별로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해 5~6월 평가 완료가 일정이었지만 자사고 폐지를 공동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평가 일정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윤다혜기자

오늘 수능 6월 모의평가

62만8천명 응시…EBS 연계율 70% 수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1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95개 고교와 282개 학원에서 시행된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11월 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6월과 9월 두 차례 실시하는 공식 모의평가 중 첫 시험이다.

올해 모의평가는 국어와 수학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수준별로 나뉘어 출제되는 선택형 수능에 따라 A·B로 구분돼 진행되지만 영어는 A·B형 구분없이 통합형으로 출제된다.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재학생 55만5372명, 졸업생 7만2822명 등 62만8194명이다.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A형 29만 6310명, B형 33만9981명 ▲수학 A형 40만8921명, B형 21만5797명 ▲영어 62만5582명 ▲사회탐구 35만1977명 ▲과학탐구 24만 5625명 ▲직업탐구 2만8298명 ▲제2외국어·한문 5만6279명이다.

시험은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이다.

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EBS 수능 교재와 강의와의 연계율을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결과는 다음달 3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수녀들과 몸싸움 11일 오후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답마을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과 함께 있던 수녀들을 경찰이 강제로 제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밀양 송전탑 농성장 강제 철거

경남 밀양시가 11일 오전 경찰 지원 속에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서 농성장을 철거했다.

밀양시는 이날 오전 6시 부북면 평밭마을 129번 송전탑으로 올라가는 진입로인 장동마을 입구 농성장에서 주민과 반대대책위원회 측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제시하고 철거를 시작했다. 장동마을 입구 농성장에 있던 주민들은 분노를 부리며 극렬히 저항했다.

경찰이 이들을 20여 분만에 끌어내자 시청 직원들이 농성장 철거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여경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모(70·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6명을 현매 격리조치했다. 반발하던 수녀와 주민 등 5명도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윤다혜기자

교육부 출신 교수, 퇴직 5년간 정책연구 제한

앞으로 교육부 공무원은 퇴직 후 5년간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책연구나 평가 자문위원회에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참여제한 방안은 4급 이상 퇴직 교육부 공무원에 적용된다. 교육부 공무원 출신 대학(전문대 포함)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교육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전직 공무원 교수가 정책연구에 공동연구자로서 참여하는 것도 연 1회로 제한하거나 이에 공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가 퇴직 후 5년간 대학 업무와 관련된 교육부의 각종 평가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금지했다. /윤다혜기자

서울 가양동 '허준 테마거리' 서울 강서구청은 의성 허준의 출생지인 가양동 허준박물관 일대에 '허준 테마거리'를 조성했다. 가양동 호텔리스~허준박물관 307m 구간에 허준과 동의보감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동백제 가로수를 심었다. /강서구청 제공

사이버 범죄 신고에도 보상금

경찰이 주요 사이버범죄 신고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사이버 수사요원 중 정보통신(IT) 전공자를 2018년까지 전체 요원의 절반 수준까지 확충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을 전담하는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1일 기존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한 사이버안전국을 출범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사이버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경찰청 훈령인 '범죄신고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국가 기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나 조직적 인터넷 사기 등 주요 사이버 범죄를 신고한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줄 계획이다.

또 노인정이나 학교, 어린이집 등을 직접 방문해 악성코드와 소액결제 차단 요령을 설명해 주고 피해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윤다혜기자

한성대 '나라사랑 감사행사'

한성대학교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0일 교내 낙산정원에서 제5회 나라사랑 감사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행사 취지 설명·환영사·기념사·축사·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희망의 새시대

대출 받아준다면서… 돈을 보내라면?

금융사기,

피해예방이 최선입니다

최근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사기 피해 방지,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1. 금융회사는 어떤 명목으로든 **비밀번호**나 **금융거래정보**를 전화로 묻지 않습니다.
2. 금융회사 직원 등이라고 속여 대출을 권유하거나 보안카드 입력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어떤 경우든 대출받기 전에 고객에게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사기**입니다.
4.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5. 통장이나 현금카드는 절대 나른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 **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신고 금융감독원 **1332** 경찰청 **112**

밀납인형에 키스·포옹 논란

metro HongKong

최근 세계적인 밀납인형 박물관인 '마담투소'가 베이징에서 문을 열었다. 유명인사를 쏙 빼닮은 인형의 등장에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 가운데 일부의 '이상한' 관람 태도가 논란이다.

박물관을 찾은 대다수 관람객은 밀납인형과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몇몇 시민들이 유재림(劉嘉玲)이나 멍루(夢露) 등 미녀스타와 함께 사진을 찍을 때 키스를 한다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저질스러운 포즈를 취해 물의를 빚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젊은 이들이 아무리 재미있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도 보기가 안 좋다" "어차피 밀납인형인데 뭐 어떤가, 문제될 것 없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베이징 마담투소는 상하이, 홍콩, 우한에 이어 중국에서 네 번째로 개장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스노든 미국 송환 될까?

검찰 플리바겐 진행중… 고어, 도·감청 긍정적 평가

미국 검찰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한 뒤 러시아로 피신한 에드워드 스노든(사진)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의 플리바겐(감형조건 유죄 합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 소속 검사와 스노든 측 플리로 캐저리스 변호사는 지난 몇주간 스노든의 미국 송환을 두고 논의를 벌여 왔다.

캐저리스 변호사는 과거 러시아를 위해 미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한 로버트 핸슨 전 연방수사국(FBI) 요원의 변호를 맡아 플리바겐을 성사시킨 적이 있다.

양측 간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스노든이 미국으로 오는 대신 혐의를 줄이는 데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6월 제출된 연방 검찰의 범죄 소장에 따르면 스노든은 정부자산 절도, 국가안보 정보 유출, 비인가자에 대한 기밀 전달 등 스파이 행위와 관련한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스노든은 지난달 미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와 관련 "미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스노든의 도감청 행위에 대해 "중대한 기여를 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스노든이 법을 분명히 위반한 만큼 그 행동을 옳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폭로한 것에는 그가 저지른 범죄보다 더한 (국가의) 헌법 위반 행위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노든은 법률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기여도 했다. 도감청이 어느 정도나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인버스ETF·FX마진거래 주목하라

환율 900원 시대 투자법…해외선 카드 결제 유리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원·달러 환율 예상치를 900원대까지 내리면서 원화 강세에 따른 재테크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번 주 들어 '1차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020원 아래로 떨어졌다. 200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01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환율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지난 9일 올 연말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기존 1055원에서 975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같은 날 모건스탠리도 내년 1~2분기 환율 전망치를 각각 980원, 960원으로 낮춰 잡았다. 기존 전망치는 각각 1100원, 1075원이었다. 이 기관은 올해 4분기 환율 전망치도 기존 1125원에서 1000원까지 내렸다. HSBC홀딩스는 지난달 29일 내년 1분기 환율 전망치를 1090원에서 995원까지 내렸다. 이외에 BMO캐피털마켓도 지난달 27일 내년 1분기 환율 전망치를 1110원에서 990원으로, 올해 4분기 전망치는 1130원에서 995원으로 조정했다.

현재로선 원화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은 없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을 보는 금융 상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 '달러선물인버스ETF(상장지수펀드)'가 있다. 원화 강세와 달러 약세 때 수익을 내는 환율연계상품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주식처럼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환차익은 물론 거래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상품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이 10%에 육박한다"면서도 "거래가 활발한 종목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외환차익거래(FX마진거래)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환율 변동성이 높은 국가 통화에 투자해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거래 금액의 10%를 증거금으로 낸 뒤 환율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는다. 레버리지(차입)가 워낙 높아 손실 위험 역시 크다.

이외에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부 환전하기 보단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결제하면 물건을 산 시점부터 청구대금이 확정될 때까지 보통 3~4일, 또는 한 달 뒤까지도 시일이 미뤄질 수 있다. 그 사이 환율이 내려간다면 그만큼 돈을 아낄 수 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market index <11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2014.67	535.30	2.82	1017.50
(+2.87)	(+0.66)	(변동 없음)	(-0.50)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마이너스통장도 감소

가정의 달인 5월에 마이너스 통장 등 은행의 기타대출이 이례적으로 감소했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국내은행의 가계대출은 526조3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150조원)은 전달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한은이 해당 통계를 파악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5월에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이 감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이 끼어 있어 마이너스통장 등 대출이 때때 증가세를 보여왔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 등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연금복권520 제154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4조	555665
		5조	955493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221652
4등	100만원	각조	55210
5등	2만원	각조	733
6등	2000원	각조	12 75
7등	1000원	각조	3 6

취업 증가 석달째 둔화 청년층 실업률 악화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40만명대를 기록해 3개월째 둔화됐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는 2561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만3000명 증가했다.

신규 취업자 수는 1월에 70만5000명, 2월에 83만5000명 늘었지만 3월 64만9000명, 4월 58만1000명, 5월 41만3000명으로 3개월째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40만명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8~10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는 지난해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인 38만6000명보다 많다.

5월 실업률은 3.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95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4000명(19.3%) 증가했다. 이 중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포인트 올라갔다.

연령별로는 1년 전보다 50대 취업자는 22만7000명, 60세 이상 취업자는 18만2000명, 40대 취업자는 2만2000명 각각 늘었다. 그러나 여덟달째 증가세였던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1000명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30대 취업자도 4만2000명 줄었다.

산업별로는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4.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2.1%), 운수업(-0.1%) 등의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김민지기자

휴업 전에 기름 넣자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 7월 시행에 반발해 전국 3000여개 주유소가 오는 12일 동맹휴업을 예고했다. 11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서 차량이 주유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품질 음원서비스 잡아라

IT·통신업계 인수·합병 열풍…아이리버 주가 급등

국내외 IT·통신업계가 포화상태인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이목을 끌 새 서비스로 차별화된 음악 콘텐츠 제공에 눈을 돌렸다. 이에 국내 중시의 경우 한때 MP3 열풍을 불러 온 아이리버의 주가가 최근 인수·합병(M&A)과 맞물려 급등세를 이었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인수의향서(LOI) 제출을 마친 아이리버 인수전에 SK텔레콤과 국내 사모투자펀드 운용사(PEF) 일본계 음향회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통신업체로서 인수 의사를 밝힌 SK텔레콤은 아이리버가 구축한 고음질 음원사이트인 '그루버스'를 통해 자체 음원서비스 토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이리버의 웨어러블 음향기기와 스마트기기를 연계해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폭넓은 음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이리버의 주가는 지난 달 28일부터 8거래일간 상승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애플이 고객 맞춤형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몸을 걸어 올렸다.

애플은 지난 달 고급 이어폰 업계의 선두업체인 비츠일렉트로닉스와 음악스트리밍서비스업체인 비츠 뮤직을 30억 달러(약 3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비츠 뮤직은 정액제 요금을 내면 광고 없이 음악을 제공하며 아이폰 아이워치 사용자에게 특정 음악인의 음악이나 상황에 맞는 음악을 맞춤형 선곡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IT 통신업체의 이런 시도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새 동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에 가깝다.

김예은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스마트폰 보급이 선진시장 위주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번 아이리버 인수를 통해선 IT 하드웨어 쪽 확장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소공로 2가 1 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3-1551
발행·편집인 남궁희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경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수도권 남부 부동산, "반갑다 교통호재"

타 지역과 접근성 좋아지고 인프라 공유도 가능해져

경기 남부지역의 교통여건 개선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권 확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교통망 확충은 부동산 시장이 가장 강력한 호재로 여겨지곤 한다.

지난 2009년 개통한 서울지하철 9호선이 대표적이다. 9호선이 연결되는 강서, 여의도, 동작일대 아파트들의 경우 강남 이동성이 좋아지면서 개통 이후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바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남부권에서 확충되는 교통망 중 성남~여주 복선전철이 가장 빠른 추진 속도를 보이고 있다.

성남 판교역(신분당선)에서 이매역(분당선)을 지나 광주~이천~여주로 이어지는 이 노선은 내년 말 개통 목표다. 모두 9개 역이 신설되며, 삼동역·광주역·쌍동역·곤지암역 등 4곳이 광주에 들어선다. 테크노밸리가 위치한 판교는 물론, 환승을 통해 서울 강남권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KTX 수서~평택 노선도 내년 개통을 앞두고 단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가에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고양~동탄구간(A노선)은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2017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미 추진중인 삼성역~동탄간 GTX(2020년 개통 예정)과 연결되면 동탄에서 고양까지 40분 안에 갈 수 있다.

2009년 노선 확정 후 2012년 공사에 들어간 제2경인연결고속도로는 2017년 완공될 계획이다. 9852억원을 들여 안양 석수나들목에서 과천~의왕을 거쳐 성남 여수대로까지 21.82km 구간에 건설된다.

올해 착공을 추진하는 교통망도 있다. 총 사업비 4조981억원을 들여 서울~안산을 잇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상반기까지 민자재정 투입방식을 결정하고, 하반기 중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1단계로 안산 중앙역~성포동~목감~KTX광명역~여의도 구간과 시흥시청~KTX광명역 구간의 공사가 예정돼 있다. 2단계로 여의도~서울역 노선이 계획돼 있다. 1단계는 2019년, 2단계는 2023년이 완공 목표다.

용인 천리에서 동탄2신도시 중리를 잇는 국지도 84호선도 연내 착공이 목표다. 총 사업비 2547억원가량 투입되며, 올해 공사에 들어가면 2016년 완공된다. 현재 용인 천리에서 동탄 중리까지는 1시간 이상 걸리지만 완공 후에는 이동거리가 6.6km로 단축,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교통망이 새로 생기면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쉬워질 뿐 아니라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도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특히 광역교통망이 닿지 않았던 광주, 시흥지역에서는 이 같은 호재를 발판 삼아 '역puls 편한세상 광주역', '시흥 목감 한양수자인' 등 지역 내에서 오랜 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n1920@metroseoul.co.kr

해외 직구 손쉬워진다

내주부터 환급 규제 풀려

내주부터 해외 직접 구매품의 환급 규제가 풀린다.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한 물건을 반품해도 수입 때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 직구로 수입한 물건을 반품하려면 주문내역서 등으로 하자물품의 계약·주문 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게 명확하게 확인될 때만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자 등 반품 사유 외에 구매취소 등의 사유로 반품할 때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 조건이 완화된다.

다만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바뀌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에 반입해 성질과 형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기존 관세환급 요건은 유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 급증으로 수입물품의 반품·환불 수요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관세환급 요건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해외 직접구매의 상승세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올 4월까지 세관을 통해 수입된 해외 인터넷 쇼핑물품이 약 500만 건에 4억9000만 달러 규모로 사상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급증했다. 최대 쇼핑국은 미국(74%)이 압도적이다. 중국(11%), 독일(5%), 홍콩(4%), 일본(2%)이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보양식 재료 싸게 팝니다" 농협유통은 11일부터 서울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보양식 특별전'을 진행한다. 민물장어, 전복, 홍삼, 한우사골 등 인기보양식 재료들을 최대 35%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국 통화 절상률 주요 17개국 중 최고

내수경기 부담 우려

주요 선진국의 환율 전쟁 속에서 한국의 통화 절상률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1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9일 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016.2원으로 지난해말 종가인 1055.4원보다 3.7% 절상됐다. 이는 일본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17개국 통화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에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달러 대비 절상률은 3.2%, 말레이시아 링깃은 2.5%, 엔은 2.4%였다. 필리핀과 터키 통화는 각 1.9%, 싱가포르 달러와 유로는 각 1.1%, 태국 바트는 1.0%, 쿠웨이트 달러는 0.1%였다.

홍콩 달러와 대만 달러, 영국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중국 위안, 뉴질랜드 달러, 호주 달러는 달러화 대비 약세를 기록했다.

선진국의 돈 풀기 전쟁 속에서 다른 신흥국보다 경제 기초체력이 좋은 한국으로 돈이 몰리면서 원화 가치가 급등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자본의 국내 순유입 기조 등을 근거로 환율이 달러당 10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원화 절상이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관광수지 적자 폭을 확대시켜 내수 경기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기름을 붓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유럽에서 풀린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쏟아지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낀 한국으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국 통화 절상률 현황

통화	절상률(%)
한국 원화	3.7
인도네시아 루피아	3.2
말레이시아 링깃화	2.5
일본 엔화	2.4
필리핀 페소화	1.9
터키 리라화	1.9
싱가포르 달러화	1.1
유로화	1.1
태국 바트화	1.0
쿠웨이트 디나르화	0.1

연합뉴스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제적 정책 환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환율과 관련해 당국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지기자 minji@

KT '기가토피아' vs SKT 'ICT 노믹스'

'MAE 2014' 맞대결… 한국의 IT 알리기 본격 행보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인 모바일 아시아 엑스포(MAE) 2014가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본격 개막했다. 이번 'MAE 2014' 참석을 위해 방중한 황창규 KT 회장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의 국내 IT 기술을 알리기 위한 행보도 시작됐다.

황창규 회장은 이날 '연결을 넘어 가치창조, 기가토피아'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황 회장은 "사물인터넷(IoT) 시대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센서 기술의 발달,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대, 기가급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분석 등 혁신적 기술 발전으로 더 스마트한 IoT 사회가 오고 있다"며 "통신사는 강력한 유무선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솔루션 등 보유한 IT 역량을 통합하고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차별화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더 많은 디바이스와 서비스가 서로 연동 가능하도록 개방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IoT 활성화를 위해 △표준화 △글로벌 IoT 데이터 공유 허브 구축 △글로벌 IoT 포럼 구성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업계는 시장 포화에 직면한 이동업계에 IoT가 미래 성장을 위한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IoT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적용돼 향후 10년간 19조 달러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구글, 애플, 삼성, LG 등 제조 기업에 이어 AT&T, 버라이즌 등 통신기업, 인텔 등 전자부품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IoT에 적극 투자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황 회장은 "IoT 시대를 맞아 KT는 기가인프라를 기반으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위에서 다양한 미래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가토피아 시대' 스마트 동반자'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도 'MAE 2014' 행사 현장을 찾아 'ICT노믹스'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앞서 하 사장은 10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이사회와 이동통신사 CEO 연석회의에

화창규 KT 회장이 11일 개막한 'MAE 201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KT 제공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11일 'MAE 2014' 기업 부스들을 둘러보고 있다.

참석해 10월 우리나라에서 ITU 전권회의와 함께 열리는 한국 최초의 GSMA 행사인 'Mobile360 부산' 행사의 협력을 당부하고 ICT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존 프레드릭 박사스 의장, 앤 부베로 사무총장 등 GSMA 의장단과 ICT 산업계의 글로벌 리더들을 만나 5세대(5G) 네트워크, 신속하고 효율적인 모바일 인증체널 구축 등 다양한 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융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치 창출, 모바일 네트워크를 둘러싼 다양한 사업자들과의 협업 강화 등 새롭게 다가올 'ICT노믹스 시대'의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도심에 나타난 헤라클레스 11일 서울 청계천 장통교에서 한 다국적 스포츠용품 기업 관계자들이 도심 속 시민을 상대로 '크로스핏' 운동법 홍보를 위해 역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르노삼성·이랜드월드 동반성장 최하위

100대기업 조사… 현대차·삼성전자·KT '최우수'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쓰리엠, 이랜드월드, 휴럴러스 등 14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노력을 계량화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하위인 '보통'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11일 1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산정 결과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 기업은 14개사, '우수'와 '양호' 등급은 각각 36개사였으며 가장 낮은 '보통' 등급 기업은 14곳이었다.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기아자동차,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전자, 코웨이, 포스코,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KT, SK C&C, SK종합화학, SK텔레콤 등이다.

반면 농협유통, 대상, 동원F&B, 르노삼성자동차, 오뚜기,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휴롤러스, BGF리테일, LF(구 LG패션), STX중공업 등은 최하위인 '보통' 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번 발표에서 기존 4개 등급의 명칭('우수-양호-보통-개선')을 '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변경해 부여했다.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으로 개선한 것은 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추진동기를 부여하는데 바람직하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자발적인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나 업종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제윤기자 kjyun@

주택시장 3개월째↓ … 수도권·지방 격차 커

2·26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기대심리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주택사업환경지수는 101.0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달보다 12.0포인트 내린 것으로 3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0.0으로 지난달보다 16.4포인트, 수도권은 88.4로 24.2포인트 떨어졌다. 수도권은 경기가 88.0(29.6포인트↓), 인천이 88.9(18.8포인트↓)를 기록해 올해 처음으로 '100선' 아래로 내려갔다.

HBSI는 기준값 100을 초과하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음을 의미한다.

지방은 110.3으로 전달보다 0.7포인트 하락했지만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산이 123.6(15.8포인트↑)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남 107.5(10.1포인트↑), 광주 115.9(5.9포인트↑)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세종 104.4(14.7포인트↓), 전북 100.0(5.4포인트↓) 등은 서울·수도권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다.

분양 시장과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실적지수는 108.0(17.0포인트↓), 분양계획지수는 104.0(12.3포인트↓)을 나타냈고, 미분양지수는 67.7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달 올 들어 처음으로 '100선'이 무너졌던 재개발지수와 재건축지수는 이달에도 각각 6.3포인트와 1.7포인트가 빠지면서 81.1과 86.2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26대책이 시장 회복세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데다 세월호 사건 이후 대수심리 위축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족하고 얼어진 실수요를 확충·보완할 수 있는 수요 촉진 유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욱기자 pwo@

"49인치 UHDTV 200만원 이하면 산다"

국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49인치 초고화질(UHD)TV의 적정 가격은 151만~200만원선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발표한 'UHD 방송 인지도와 이용의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인터넷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업체의 49인치 UHD TV 적정 가격에 대해 39.7%가 151만~200만원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101만~150만원이 29.3%, 201만~250만원이 19.0% 순으로 조사됐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3월 49인치 UHD TV를 290만원에 출시했으며, 삼성전자는 지난달 50인치 UHD TV를 249만원에 내놨다.

이들은 UHD 방송을 시청한 후 66.7%가 구입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TV를 교체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8.8%에 불과했다.

이처럼 UHD 방송에 대한 높은 의향에도 불구하고 UHD 방송이 활성화까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응답자 중 전체의 59.5%가 UHD TV의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료 또는 저렴한 UHD 방송 이용료, 풍부한 콘텐츠, 적극적인 홍보 순으로 나타났다. /서예진기자

실적악화에도 고용 늘렸다

47개 그룹 전년比 5%↑…신세계·CJ 등 유통그룹 주도

대기업이 생산성과 수익성 악화에도 고용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호출자제한 47개 기업집단은 매출이 2% 뒷걸음질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 수익성이 전년 대비 20% 이상 크게 악화됐지만 고용은 5% 늘렸다.

11일 기업경영성과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47개 기업집단 1554개 계열사의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 상주 직원은 142만8550명으로 전년 136만6201명보다 4.6% 늘었다.

반면 이들 대기업의 매출은 1455조2000억원으로 전년 1486조4000억원에 비해 2% 줄었다. 영업이익도 80조6000억원에서 76조1000억원으로 5.6%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67조5000억 원에서 52조6000억원으로 22.1% 줄었다.

지난해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신세계로 직원 수가 3만2319명에서 4만7723명으로 47.7% 증가했다. 신세계는 지난해 이마트가 1만여명 이상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며 고용이 크게 늘었다.

현대백화점은 영업이익이 8.6% 줄었지만 직원은 1만2822명으로 전년보다 2000여명(17.2%) 증가했고, 현대산업개발은 적자전환에도 1200명(16.9%) 늘어나며 2~3위에 올랐다.

CJ는 계열사 수가 81개에서 71개로 10개 줄었고 영업이익(-12.7%)과 순이익(-53.9%)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악화됐지만 고용은 4만6471명에서 5만3840명으로 15.9% 늘렸다.

이처럼 대기업 그룹의 고용 증가는 삼성·현대차 등 상위 그룹보다 재계 13~24위권의 신세계·현대백화점·CJ 등 유통업을 영위하는 내수 중심의 중견 그룹 주도로 이뤄졌다.

실제 47개 그룹의 지난해 고용 증가 인원은 6만2000여명이고 이 중 40%에 달하는 2만4600여명을 이들 3개 그룹이 늘렸다.

또 효성(1만7958명→1만9394명 8%), 부영(1390명→1499명 7.8%), 대림(9894명→1만666명 7.8%), 아모레퍼시픽(5880명→6299명 7.1%), 롯데(8만4554명→9만1044명 7%), 금호아시아나(2만817명→2만2154명 6.4%), 동부(2만771명→2만2100명 6.4%) 순으로 고용 증가율이 높았다.

이들 톱 10 그룹 중 생산성과 수익성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 곳은 신세계와 아모레퍼시픽 뿐이다. 다머지는 매출이 줄거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곤두박질쳤다.

국내 5대 그룹의 고용 증가율은 3.1%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나머지 하위 그룹의 증가율은 6.1%로 2배가량 높았다.

롯데가 8만5059명에서 9만1044명으로 7% 늘리며 평균을 상회했을 뿐 현대차(4.7%), 삼성(2.3%), SK(1.7%), LG(1.3%) 등은 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반면 대성은 5624명에서 5180명으로 7.9% 줄었고, 하이트진로도 4243명에서 3993명으로 5.9% 감소했다. 두 그룹은 지난해 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했다.

한솔은 순이익 적자 폭이 2707억원에서 160억원으로 개선된 가운데 직원 수는 5431명에서 5245명으로 3.4% 감소했다. 또 대성(-1.8%), 미래에셋(-1.7%), 두산(-1.5%), OCI(-1.3%), KT&G(-1.3%), 한국지엠(-1.3%), 세아(-0.9%), 홈플러스(-0.5%), KCC(-0.3%), 한라(-0.3%) 등도 직원 수가 줄었다.

/김민균기자 ksd@metroseoul.co.kr

<고객관계관리>

소상공인도 고급 CRM 쓴다

퀀텟시스템즈 '인페이버' 출시
3만원대 설치비 매장홍보 가능

3만원대의 설치비와 월 이용료만 있으면 소상공인들도 CRM(고객관계관리)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CRM 솔루션 기업 퀀텟시스템즈는 11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콘(저전력 블루투스)을 활용한 마케팅 플랫폼 '인페이버'와 웹 기반의 비콘 관리 솔루션 '인페이버 비콘 매니저'를 선보였다.

인페이버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기반의 CRM 플랫폼이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매장홍보, 상품소개 등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장에 들어온 고객에게 상품의 위치나 가격, 할인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간 설문조사도 가능하고 구매현황, 정보확인 여부 등의 통계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항공사의 경우에는 탑승정보, 시간, 탑승 게이트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소비자들도 쿠폰이나 멤버십카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할인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에 비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블루투스만 활성화하면 쿠폰북 등이 뜬다. 쇼핑 카테고리를 설정하면 원하는 정보만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박성용 퀀텟시스템즈 대표는 "소상공인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비용이 장점"이라며 "대형 유통사, 항공사 등에서도 인페이버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금전 거래시 유의할 사항

법률칼럼
박용성 변호사

의뢰인들과의 상담내용 중 친인척, 가까운 친구 등에게 돈을 빌려 주었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상황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돈을 빌려주었으나 차용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고 있는 경우, 돈을 빌리고 종적을 감추어 버리는 경우, 돈을 차용인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온라인 입금시켜 주었으나 차용인이 자신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 등입니다.

돈이 금전을 빌려 주었으나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민사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차용인)은 돈을 빌려 준 사람(대여자)에 대해서 금전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돈을 갚기로 한 날부터 변제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대여자는 차용인이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차용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최고하여야 하고, 10년이 경과된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위 기간내에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하고, 금원의 청구도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위 차용인의 채무불이행 성립 외에 사기죄 성립여부와 관련한 문의가 많습니다만 사기죄의 경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현 02)592-2224

골 넣을때마다 반값 LG유플러스는 브라질에서 골 터질 때 마다 무제한 데이터 로밍 반값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13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제공

직장인 월급 15일이면 '바닥'

내꺼인 듯 내꺼 아닌 '썸' 타는 느낌

직장인들에게 월급이란 '썸'과 같은 느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수 소유와 정기고의 노래 '썸'의 가사 '내꺼인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라는 뜻이다.

11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005명을 대상으로 '월급에 대한 생각'(복수응답)을 묻은 결과 이같은 답변이 3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바람과 같이 스쳐지나간다'(30.7%), '신기루, 쳐다 본 것 같은데 없다'(24.6%), '이슬과 같이 사라진다'(21.1%), '공기, 실체는 있으나 보이지 않는다'(18.1%), '메신저 로그인 로그아웃을 반복한다'(17.1%), '착시, 생각보다 적어 보인다'(15.3%), '엄친아, 늘 남과 비교된다'(13.4%), '달팽이, 올라는 가는데 느리다'(10.7%)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이 생각한 이유로는 '월급이 적기 때문에'가 62%로 가장 많았다. 신용카드 사용이 많아서(34.9%), 낮은 월급인상률 때문에(26.4%), 공과금·경조사 비용이 많아서(19.6%), 대출 이자가 많아서(11.4%) 순으로 조사됐다.

'월급 누가 가장 많이 빼가는가'란 질문에는 카드사가 7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대출금(21.3%), 보험사(17.8%), 통신사(17.6%), 배우자(6.6%) 등도 많이 거론됐다.

'월급이 모두 쓰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기혼직장인의 경우 평균 15일에 불과했다. 미혼 직장인은 이보다 사흘 많은 18일로 집계됐다. /이국명기자 kmlee@

어미 닭 없는 식물성 달걀로 '황금알'

미국 식품벤처 미래 식량 책임질 기업으로 꼽혀… 마요네즈 등 인기

글로벌 이코노미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이 질문에 '달걀'이라는 대답을 거침없이 내 놓는 기업이 있다. '햄턴크릭푸드'. 어미 닭 없는 '식물성 달걀'을 선보이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의 벤처 식품기업이다. 최근 미 창업전문지 엔트러프레너는 미래 식량을 책임질 대표 기업으로 이 업체를 꼽았다.

햄턴크릭푸드는 201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됐다. 최고경영자(CEO)인 조시 테트릭은 인간과 동물, 환경을 위한 달걀을 만들겠다며 인조 달걀 개발에 나섰다. 테트릭은 "매년 전 세계 양계장에서 1조8000개의 달걀이 나온다"며 "대부분 지저분한 농장의 비좁은 우리에서 사는 닭이 낳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깨끗한 곳에서 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신선한 달걀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물성 달걀로 만든 마요네즈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조시 테트릭 햄턴크릭푸드 CEO /news.com.au

인조 달걀은 노란 콩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성분이 주 원료다. 콜레스테롤이 없어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질병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인조 제품이 기존의 달걀을 대체하게 되면 밀폐형 우리에 갇혀 쉬지 없이 알을 낳다 죽는 닭도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

테트릭은 "요리사와 생물학자, 식품학자와 각종 실험과 연구를 거듭한 끝에 실제 달걀과 맛, 영양가가 비슷한 인조 달걀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닭을 방목해서 키울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값이 저렴하면서도 영양가는 높은 인조 달걀을 개발하기 위해 애썼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햄턴크릭푸드는 50만 달러의 초기 자본금으로 '비욘드 에그'를 선보였다. 노란색 가루 형태인 이 제품은 빵과 과자 등을 만드는 데 달걀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달걀 없는 마요네즈'도 지난해 출시와 동시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식물성 달걀의 가치를 알아 본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과 아시아 최고 부호인 리카싱 홍콩 청쿵그룹 회장은 햄턴크릭푸드의 큰손 투자자로 나섰다. 이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햄턴크릭푸드는 '무 달걀 과자 반죽'과 '콜레스테롤 없는 스크램블 에그' 등 후속 제품을 선보이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테트릭은 새로운 물건이 기존 제품보다 획기적인 품질과 성능, 가격 경쟁력을 자랑할 경우 시장 판세를 뒤흔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회사의 미래를 낙관했다. 똑같은 영양가를 가진 인조 달걀을 일반 달걀의 반값에 내 놓는데 사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게임 속 여주인공?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게임전시회 'E3'에서 10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게임 속 캐릭터 복장을 한 도우미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브라질 월드컵 SNS로 즐겨라

페이스북·트위터 서비스 경쟁 '후끈'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업계들이 브라질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특화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세계 최대 SNS 업체인 페이스북은 트렌딩 월드컵(Trending World Cup)이라는 특별 코너를 10일(현지시간) 오픈했다. 경기 결과, 속보, 하이라이트는 물론이고 경기와 관련해 선수와 팀이 올린 글을 볼 수 있다.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인기 선수와 팬이 세계 어느 곳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팬지도도 눈길을 끈다. '레프(The Ref)' 페이지에 접속하면 화려한 말솜씨를 지닌 페이스북 축구해설가의 실시간 중계와 분석을 볼 수 있다.

트위터도 월드컵 전용 타임라인 서비스를 최근 오픈했다. #worldcup(월드컵) 해시태그를 설정하면 월드컵과 관련된 트윗을 모아서 볼 수 있다. 경기 맞춤형 타임라인도 설정할 수 있어 관심 있는 경기에 관련된 트윗만 별도로 모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또 #KOR(대한민국), #BEL(벨기에) 등 국가코드를 해시태그하면 국가 이미지가 표시되는 '해시플래그' 기능도 활성화된다.

/한국일기자 kmiss@

美 드론 상업적 사용 첫 허가

BP 원유 탐사에 사용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10일(현지시간) 자국 내 상업용 무인기(드론·사진)의 첫 사용을 승인했다.

연방항공국은 알래스카 지역에서 무인기를 활용해 석유탐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BP 측은 무인항공기 제작사 아에로바이런먼트가 만든 무인기를 석유 탐사와 송유관 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은 이번 승인을 "무인기의 상업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연방항공국은 무인기의 상업적 비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항공 안전은 물론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서다. /조선미기자

위성 인터넷 서비스 박차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 구글이 신간 오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박차를 가한다.

11일(한국시간) 위성 회사 '스카이박스 이미징'을 현금 5억 달러(51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스카이박스 위성으로 찍은 영상을 이용할 계획이다. 구글은 또 앞으로 스카이박스의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재난 구호를 돕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

비엔나市, 한국 IT인재 '유혹'

원스톱 투자유치 서비스… 최대 7억원 정착지원금 등 혜택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국내의 우수한 IT 스타트업이 해외로 둥지를 옮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가 한국의 우수한 두뇌 유치를 선언했다.

비엔나 시는 11일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한국의 뛰어난 스타트업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당근'을 제시했다.

비엔나는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등 유명 음악가들이 살면서 명작을 남긴 음악의 수도로 알려져 있는 도시. 최근 몇 년간 IT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어느덧 유럽 3대 IT도시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5700여개의 IT기업들이 연간 200억 유로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최근 중부 유럽과 동유럽 출신의 청년 창업가들의 핫 스팟으로 떠오르면서 매년 8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살고, 영어로도 소통이 잘 되며, 특히 노동법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많이 임금이 높지 않아 스타트업을 하기에 최적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비엔나는 대학생이 전체 시민의 10%인 18만7000여명으로 독일 문화권에서 가장 큰 대학 도시다. 점점 유럽 여러 지역의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어 향후 유럽 IT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엔나는 정보통신기술을 필두로 모바일, 환경, 창조산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미 박스터, 베링거인겔하임, 보레알리스, 오토복, 지멘스 같은 생명과학 핵심 기업들이 비엔나를 사업의 거점으로 결정한 상태다.

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1위'에 선정된 비엔나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외국에서 사업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언어 소통인데 비엔나는 15개 국어로 이와 관련한 상담을 무료로 해준다. 한국에서 말하듯 소통하는데 어려움 없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최대 50만 유로(약 7억원)까지 직접 지원한다. 사무실, 공장 입지, 기술과 미디어 분야 고유의 특수 부동산 등 적합한 장소까지 제공한다.

또 사무실이나 공장 소재지 탐색, 인가, 행정 절차는 물론 인력 모집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도 챙겨준다. 창업자 가족과 자녀를 위해 유치원과 학교, 일자리 탐색도 대신 해준다.

레나테 브라우너 비엔나 부시장 겸 부주지사는 "비엔나는 우수한 젊은 스타트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스타트업에게도 성공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Mozarthaus Vienna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가 국내 우수 IT 스타트업 유치에 들어간다. 비엔나를 대표하는 음악가 모차르트를 기리는 모차르트하우스의 모습. /비엔나 관광청 제공

술집에서 버림받는 스마트폰

IT도 인문학이다
/박성훈기자 zen@

며칠 전 호프집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테이블 중앙에 무언가가 잔뜩 쌓여 있는데 그 높이가 20㎝는 되는 듯 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7~8명이 테이블을 둘러싼 채 앉아서 시합을 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돼 더욱 호기심을 끌었다. '무슨 내기를 하는 걸까?' 하고 유심히 살펴보는 와중에 독특한 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말과 표정에 집중했고 웃음과 박수 소리를 자주 들려줬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카톡을 확인하거나 걸려온 전화를 받느라 옆에 앉은 사람이 건넨 대화조차 함께 호흡할 수 없는 다수의 애주가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1시간 좀 지나자 큰 탄성과 함께 "술값 당첨"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알고 보니 테이블 위로 우뚝 솟은 물건은 그들의 스마트폰을 차곡차곡 쌓은 것이었고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만지는 사람이 술값을 내는 내기였다.

서로 원해서 모인 자리인 만큼 스마트폰의 방해를 받지 않고 즐겁게 술을 마시고 대화도 하고 하소연도 하자는 취지였던 셈이다. 술값을 내게 된 사람은 언거푸 전화가 오자 회사에서 급하게 지시한 것이 있는 줄 알고 받았으니 '내 우산 어디에 뒀냐'는 언니의 디그림이 었었을 뿐이다.

그들이 즐긴 게임을 보면서 술집에서만이라도 문명의 이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대인의 몸부림을 진할 수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그나마 오래 견디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이 게임은 간지럼이나 술을 오래 참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간지럼을 타지 않고 술을 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기에 단행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으뜸가는 필수품이다. 다만 이 필수품을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시간과 빈도를 줄이는 노력을 할 수는 있다.

스마트폰과 뇌종양 발병 위험을 다룬 최근 기사를 보면 스마트폰으로 장하는 우리의 손에 조금이나마 경고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프랑스 보르도 대학 이자벨 발디 교수는 '스마트폰 사용과 뇌종양 발생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192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생 업종 누적시간 이상 휴대전화 통화에 쉬기 노출될 경우 뇌종양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직접 귀에 대고 896시간 이상 통화할 경우 뇌종양 발병 위험성이 2~3배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매주로 나눠 비교하면 최소 5년동안 매일 30분씩 통화할 경우 뇌종양 발병 가능성이 모두 커진다는 설명이다.

호프집의 20대들은 즐겁게 떠들며 술 마시면 몸쓸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을까?

LG 포켓포토 50만대 판매 돌파 LG전자는 초소형 모바일 프린터 포켓포토가 국내 누적판매 50만대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2012년 9월 국내 시장에 처음 선보인 후 이달 약 2년9개월 만에 팔려 나간 셈이다. /LG전자 제공

내 취향을 어떻게 알았지?

일자리·영화·음악·음식점도 척척 추천

최근 '취향 맞춤형'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복잡하게 검색하지 않아도 개인의 취향·성향·서비스 이용 목적 등을 분석해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기 때문이다.

◆채용정보도 미리알으로

수많은 채용공고에서 원하는 공고를 찾기 위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취업포털 사람인의 '아바타서치'(사진)는 비슷한 스펙을 보유한 다른 구직자들이 자주 찾는 채용공고를 추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구직활동 패턴을 분석해 맞춤 채용공고를 알려주는 '패턴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추천영화도 골라준다

영화 추천 서비스 '왓챠(Watcha)'는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영화를 자동 추천해준다. 좋아하는 영화 20여 편에 대한 별점을 매기면 이와 유사한 영화를 영화감독, 배우, 장르 등의 조건에 맞춰 보여주는 방식이다. 페이스북 친구의 별점 평가와 리뷰도 확인할 수 있다.

◆나만의 DJ를 만난다

네이버의 음악 서비스 '네이버뮤직 라디오'는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맞춤 DJ처럼 음악을 자동 선곡해준다. 예를 들어 소녀시대의 '지금이었죠'를 듣다가 라디오 듣기 기능을 이용하면 이와 유사한 노래를 랜덤으로 재생한다.

당신의 경력을 선택해주세요.

원하는 캐릭터 선택

추천 곡의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면 추천음악의 대칭 정확성이 높아진다.

◆맛집으로 입맛 찾는다

'포크' 애플리케이션은 취향을 분석해서 음식점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특징이다. 직접 기본 음식점을 평가하면 학습형 엔진의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음식점을 알려준다.

/이국환기자 lexlee@

월드컵 응원 "여기가 어때요"

호텔스닷컴, 직장인을 위한 응원 장소 추천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2002 한일월드컵의 뜨거운 응원 열기를 재현하고 싶지만 한국팀 경기 일정 대부분이 우리 시간으로 평일 새벽 시간이라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호텔스닷컴이 추천하는 명품 응원 장소를 소개한다.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 /호텔스닷컴 제공

◆박지성 와인 마시며 응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서울은 최근 리노베이션을 통해 객실의 카페트, 소파 등을 새롭게 교체했으며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강화해 보다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다.

침실과 거실공간이 합쳐진 스튜디오 타입의 객실과 스위트 타입의 객실이 있고 장기 체류하는 여행객들이 많아 각종 편의시설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여의도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오픈 키친형 레스토랑 '파크카페'는 월드컵 기간에 '파봄 런치&디너 메뉴'와 함께 박지성 선수가 직접 디자인한 이탈리아 와인 '카인티 리제르바'를 판매한다.

◆여자들만의 응원 서울 로프트 아파트먼트로~

여자 친구들끼리 모여 월드컵을 응원하고 싶다면 창경궁 근처에 위치한 SLA 서울 로프트 아파트먼트가 좋다. 디자이너 출신의 부부가 직접 꾸민 20개 객실이 아기자기한 분위기에 충분하다. 특히 독특한 원형 계단의 복층 구조 객실은 파티룸으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어 근사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게다가 객실 내 기본적인 조리기구가 잘 갖춰져 있어 직접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다. 날씨가 좋을 땐 전망 좋은 옥상에서의 노상 숯 바비큐 파티도 가능하다.

◆상 받은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

자신께 월드 트래블 어워즈(World Travel Awards)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서비스드 아파트먼트 브랜드'로 선정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는 모던하고 아늑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레지던스 호텔이다.

호텔 내에는 실내 수영장을 비롯해 스파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있는 사우나, 스크린 골프 등 피트니스 시설이 있어 응원과 함께 내 몸을 단련할 수 있다. 또 침실이 필요 없는 스튜디오 프리미어와 1베드룸 프리미어 타워 룸도 준비돼 있어 응원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황재용기자 hsnu@metroseoul.co.kr

"월드컵 한화호텔앤드리조트서"

할인 행사·퍼포먼스 등 다양한 이벤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 홍원기)가 월드컵을 맞아 63씨티, 아쿠아플라넷 여수·제주, 관교 아이큐아리움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63씨월드에서는 대한민국 축구팀 유니폼을 입은 아쿠아리스트 2명이 화려한 축구 기술을 선보이는 '2014 SOCCER in 63씨월드'가 펼쳐진다. 아쿠아리스트의 축구 쇼와 더불어 물고기떼들이 축구공을 몰아 골대에 골인시키는 이색적인 볼거리도 함께 제공되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할인 이벤트도 이어진다.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최고 인기를 자랑하는 벨루가가 월드컵 동안 관람객들에게 축구공 모양의 비치볼을 직접 던져주는 '태극전사 벨루가!' 이벤트를 마련했다. 공을 받은 관람객에게는 벨루가의 집게 수조에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푸짐한 상품이 주어진다. 게다가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하면 입장료의 30%를, 8강 진출 시에는 40%를 할인하며 붉은색 응원용 티셔츠를 입고 오는 고객은 반값으로 아쿠아리움에 입장할 수 있다.

또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대한민국 축구팀의 첫 경기 전날인 17일에 '제주의 바다' 수조에서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아울러 응원엽서 작기 이벤트와 특별 할인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 디지털 아쿠아리움인 관교 아이큐아리움은 17일까지 첫 골을 넣는 한국팀 선수를 맞힌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아이큐아리움 무료 이용권, 관교 메리어트 호텔 이용권과 뷔페 식사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황재용기자

"기내 수하물 규격 표준화 시급"

스카이스캐너, 전세계 항공 여행자 1천명 조사

전세계 여행자 10명 중 8명이 항공사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기내 수하물 규격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 가격 비교 사이트 스카이스캐너는 최근 1년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전세계 여행자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가 모든 항공사에 동일한 기내 수하물 규격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항공사들이 운영 중인 기내 수하물 규격은 천차만별이다.

스카이스캐너가 직접 측은 검유를 통해 우리나라에 운항 중인 주요 28개 일반 항공사의 기내 수하물 규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항공사는 평균적으로 수하물(이코노미석) 1개당 무게는 8.92kg, 크기는 117.11cm(3변의 합)의 기준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기내 수하물 무게에 가장 엄격한 항공사는 중국 국적의 항공사인 중국남방항공과 중국동방항공으로 수하물 무게 허용 범위가 겨우 5kg에 불과했다. 또 중동계 항공사인 에미레이트항공과 카타르항공의 기내 수하물 허용 사이즈는 112~113cm로 이들은 크기에 가장 민감한 항공사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국적기인 대한항공은 무게 허용 범위가 12kg로 여게 평균치를 훌쩍 넘겼지만 수하물 크기는 총 115cm로 평균치를 약간 밑돌았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무게 허용 범위와 수하물 크기 모두에서 평균치를 넘는 10kg, 118cm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주요 저가항공사와 유럽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총 23개 저가항공사의 평균 수하물 기준은 무게 8.91kg, 크기 116.09cm였다. /황재용기자

조대형 월드컵 공인구 현대백화점은 오는 25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2개 점포(울산점 제외)에서 브라질 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아디다스와 함께 월드컵 공인구 '브라주카' 모양의 대형(지름 3m) 축구공을 전시한다. 전시 기간 축구공과 사진을 찍어 현대백화점 앱A가게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브라주카 축구공 등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제공

페루 쿠스코, '인티 라미 페스티벌' 개최

페루관광청은 오는 24일부터 9일간 마추픽추의 도시 페루 쿠스코(Cusco)에서 남미 3대 축제 중 하나인 '인티 라미(Inti Raymi)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밝혔다.

인티 라미는 태양신을 기리는 행사로 잉카 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으며 태양신을 숭배했던 잉카인들에게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다.

축제에서는 태양계를 통해 한 해 농사의 풍요와 다음 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잉카인들의 태양 숭배사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라미의 심장은 태양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직접 감상할 수 있으며 잉카인들의 음악과 춤으로 가득한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황재용기자

특급호텔에서 맛보는 특급 디저트!

르네상스 서울호텔, 제철 과일 팥빙수 선봬

서울 강남에 위치한 르네상스 서울호텔이 여름을 맞아 트레비 라운지에서 팥빙수를 선보인다.

엄선된 부드러운 팥과 신선한 우유, 그리고 상큼한 제철 과일이 단콤하면서 시원한 맛을 내며 가격은 2만원이다.

또 호텔은 건강을 생각하는 웰빙족을 위해 토마토&블루베리 주스도 판매한다.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는 토마토와 블루베리는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 노화를 막아주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문의 02)2222-8667 /황재용기자

색다른 맛과 이름을 붙여라

식품업계 '믹스 레시피 네이밍' 주목

최근 식품업계에 크리슈머가 증가하면서 서로 다른 맛을 섞어 개성있는 맛을 내는 '믹스 레시피 네이밍'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믹스 레시피들의 공통점은 기존 제품에서 맛볼 수 없는 새로운 맛에 위트 있는 이름까지 붙어져 빠르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대중화되고 있다.

코카콜라사의 환타는 유튜브 공식 채널인 '환타 믹스'에서 소비자가 각기 다른 플레이버를 믹스해 만든 '환타 믹스'에 나만의 이름을 응모하는 '너만의 환타 이름을 만들어줘 (사진)'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오렌지·파인애플·포도·딸기 등 다양한 플레이버를 섞은 환타 믹스를 본 소비자들은 '썬더 플레이버', '베리스트롱', '오빠의 비밀' 등 기발하고 재치 있는 이름을 쏟아내며 믹스 레시피 네이밍을 경험하고 있다.

스타벅스에는 메뉴판에는 없지만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공식화된 메뉴인 '악마의 음료'가 있다.

벤티 사이즈(591㎖)의 그린티 프라푸치노에 에스프레소 샷과 초콜릿 드리즐, 자바칩을 2회 추가한 대용량 음료로 열량이 약 900㎉에 달한다. 일반 카페라떼 열량의 9배에 달하고 가격도 비싸지만 입소문과 함께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 음료는 기존 제품에 엑스트라 토핑을 추가해 새롭게 나만의 음료를 창조하는 스타벅스의 맞춤 음료 제조 서비스를 활용해 젊은 층의 고객이 개발해서 즐기며 온라인상에 퍼져 나가고 있다고 한다.

농심은 MBC '아빠 어디가'에서 선보인 '짜파구리'에 이어 오징어짬뽕과 짜파게티의 조합인 '오빠게티'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정형돈이 레시피를 소개되면서 라면 업계의 매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짜파게티'의 맛에 '오징어짬뽕' 특유의 시원하고 얼큰함을 가미해 매콤한 '삼선해물짜장'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

/장윤희기자 ㅡㅡ@metroseoul.co.kr

소비자 만족 '5종의 법칙' 눈길

맛·향 세분한 커피 고객 눈높이 맞추기

커피 업계가 점점 다양해지고, 고급화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분주하다.

최근에는 많은 브랜드가 한 카테고리에 각기 다른 다섯 종류의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에게 인기다. 이른바 '커피 5종의 법칙'이 적용된 제품들이다.

커피 유통 전문 브랜드 어라운지는 다섯가지 색상으로 대표되는 블렌딩 커피 5종 (사진)을 선보이고 있다. 최고급 원두가 선사하는 각기 다른 향과 맛으로 소비자 제품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구수함과 깔끔한 단맛이 인상적인 '리프레시 브라운' ▲스모키향과 깔끔한 뒷맛이 일품인 아라비카 100% 블렌딩 '샤인 블랙' ▲최고급 C.O.E(Cup of Excellence) 커피의 고급스러운 맛과 풍미를 선사하는 '퓨어 화이트' ▲매혹적인 산미가 특징인 '시크 퍼플' ▲최고급 에티오피아 첼바 원두 특유의 풍부한 베리 향이 가득한 '세러스 레드'로 구성됐다.

자체 개발한 블렌딩 5종 '핸드드립커피'도 출시했다. 이 커피는 일마운 센터와 분쇄된 원두가루로 구성돼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커피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매일유업의 바리스타(BARISTAR)는 커피 본연의 맛과 풍미를 제대로 느끼고자 하는 RTD 커피 마니아들의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제품보다 설탕 함량을 30% 줄인 '로-슈거(Low Sugar) 에스프레소 라떼' 5종을 지난 4월 선보였다.

설탕을 줄여 에스프레소 특유의 깊고 진한 맛을 즐길 수 있어 커피를 잘 아는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1% 고산지의 프리미엄 원두인 최고등급 케냐AA 원두 본연의 진하고 부드러운 맛을 구현해 고급화된 소비자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고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셀렉토커피'는 정글오리진이 만들어내는 5가지 특별한 아메리카노를 내세우고 있다. 세계 3대 커피 중 하나인 코나, 산뜻한 신맛의 예가체프, 다크 초콜릿 향미의 안티구아 등은 커피애호가 사이에서 더 유명하다. 특히 프리미엄급 원두인 코나커피를 하와이 현지 농장에서 직접 재배하고 원두 생산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장윤희기자

국내 최초 生리치 이마트는 국내 최초로 냉동이 아닌 생과를 항공직송해 오는 1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리치는 중국의 양귀비가 먹고 예뻐졌다는 전설의 열대과일이다. 대만의 원산지로 수확기가 계우 짧아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열흘 남짓에 불과하다. 그동안 리치는 보관 온도에 매우 민감해 냉동으로만 들어왔었다. 가격은 9800원(500g)이다. /이마트 제공

서울우유, '아침에 주스' CF 공개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헌)은 프리미엄 냉장주스 '아침에 주스'의 브랜드 모델로 영화배우 정우성을 선정하고 6월 초부터 신규 광고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어느 각도에서도 빛나는 완벽한 남성미를 자랑하는 정우성을 모델로 재선 확보를 보는 듯한 화려한 영상미와 함께 자연스럽게 제품의 신선함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시각적으로 정우성이 등장하는 흑백의 영상과 해당 제품의 오렌지 빛이 대조적으로 어우러져 모델과 제품의 신선함이 더욱 돋보인다.

정우성은 광고 속에서 냉장 주스를 고르는 선택의 기준으로 '신선함'을 꼽으며 생산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과정이 콜드체인시스템으로 이뤄진 제품의 특 장점을 강조했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신일성 서울우유협동조합 유음료마케팅팀 담장은 "정우성은 남자가 보아도 완벽하고 신뢰감 넘치는 배우로 신선한 품질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는 아침에 주스의 약속을 전하기에 최적의 모델이었다"며 "20년이 넘게 배우로 활약해온 정우성과 함께 아침에 주스에 대한 고객사랑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한돈너비아니·육포 최대 50% 할인

강강술래 '힘내라! 대한민국' 응원 이벤트
보양식 곰탕 사면 미켈란젤로전 티켓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6월 말까지 대한민국의 새 희망을 기원하며 국민을 응원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벌인다.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 × 3박스)는 1만8000원에 50% 할인 판매하며 영양간식 '갈비맛 최고기육포 (50g × 10봉)'도 40% 할인된 3만6000원에 선보인다.

무더위에 지친 고객들의 원기회복에 좋은 한우사골곰탕 소용량세트(350㎖ 5팩·40인분)는 2만2500원, 대용량세트(800㎖ 5팩 15인분)는 3만6800원에 최대 28% 할인 판매하며 선착순 50명에게! 미켈란젤로전 티켓(1인2매)을 선물로 준다.

베스트셀링 메뉴인 강강양념(520g)과 돼지양념(500g), 한돈양념(500g), 한우불고기(500g)로 구성된 나들이세트도 40% 할인된 6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홈페이지(www.sullai.com)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sullai)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총 50명을 선정해 흑임자한돈너비아니(1명·2세트)를 증정하는 '힘내라 대한민국 5천만 응원캠페인'도 벌인다.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영화 '아바타' 등의 특수효과 작업을 맡은 웨타 워크숍의 360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판타지 제왕의 귀환 웨타 워크숍', 1930년대 실존했던 남녀 2인조 갱 보니 파커와 클라이드 배로우의 스토리를 담은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 티켓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장윤희기자

운치있는 야간라이딩 어디가 좋을까?

한낮 더위 피하려는 '나이딩족' 증가 …지도 앱도 도움

#일산에 사는 직장인 한경원(36)씨는 요즘 야간 라이딩에 푹 빠졌다. 직장에 다니다 보니 주말 낮 시간밖에는 자전거를 탈 시간이 없었는데 그나마도 더위 때문에 10분 이상 타기가 힘들었던 이유가 크다. 더위를 피해 저녁에 자전거를 끌고 나와보니 시원한 바람덕에 자전거 타기가 딱 좋았던 것.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두세번은 퇴근 후 자전거를 즐기고 있다.

최근 야간에 라이딩을 즐기는 일명 나이딩(night+Riding)족이 늘고 있다.

야간 라이딩의 장점은 비교적 사람이 적어 여유롭게 자전거를 달 수 있다는 점과 밤길을 비추는 조명·풍경에 소리에 운치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강·녹지 주변 많이 찾아

여름철에는 강이나 녹지 주변을 중심으로 나이딩족들이 몰린다.

대표적인 자전거도로는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한강자전거도로다. 한강 본류부터 지류까지 총 길이 240㎞로 한강 둔치를 따라 조성돼 있기 때문에 경관이 좋고 대부분의 코스가 평지라서 무리하지 않고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전거 매니아들은 그 중 단연 반포코스를 손꼽는다. 이 코스는 약 5.5㎞의 거리로 여의도에서 명수대와 동작대교를 거쳐 반포대교까지 이어진다. 반포대교의 달빛무지개분수가 연출하는 야경은 일품이다.

이와 함께 상암~여의도코스는 월드컵경기장역을 출발해 평화의 공원·망원한강공원·마포대교를 지나 여의도까지 약 10㎞에 이르는 거리로 시내부터 한강·교량까지 다양한 구간을 달릴 수 있어 지루함이 없다.

양재천 주변도 대표적인 자전거 코스 중 하나다.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습지와 양재 시민의숲을 지나는 구간으로 도로를 따라서 조성된 녹지공원이 높은 빌딩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라이더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약 5.5㎞의 거리로 20~23분 정도(시속 15㎞ 기준)면 충분히 완주할 수 있다.

◆스마트폰 지도 앱 유용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출시한 지도 앱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안내해주기 때문에 라이딩 코스를 선택할 때 유용하다.

'네이버 지도' 앱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따로 안내해주는 기능이 있다. 과속 방지턱부터 경사로까지 자전거 주행 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다음 지도' 앱은 4대강 자전거길을 비롯한 전국 자전거도로가 지도에 표시된다.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겸용 도로, 자동차 겸용 도로 등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색으로 구분돼 있어 코스 선정 시 도움이 된다.

/김학철기자 kime0504@metroseoul.co.kr

쿨비즈 룩, 소재가 스타일 좌우

기능성 접목한 스포츠 피케도 인기

때이른 무더위에 가벼운 옷을 찾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면과 마 등 시원한 감촉을 지닌 여름 소재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피스룩을 비롯한 일상 생활에서부터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까지 쾌적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살려주는 여름 소재 아이템을 소개한다.

직장인들의 여름 단골 아이템은 리넨과 면 소재를 접목한 옷이다. 특히 리넨 소재 재킷을 활용하면 시원하면서 격식도 갖춘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또 평소에 외출할 때는 가볍고 시원한 면 소재의 피케셔츠를 입으면 캐주얼하면서도 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레노마의 핑크 색상 재킷은 레이온 소재를 사용해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리는 데 효과적이며 멜란지 효과(다른 색깔으로 염색된 섬유를 혼방해 하나의 실을 만들어 나타나는 얼룩덜룩한 효과)의 오렌지 색상 리넨 재킷을 선택하면 조여름부터 한여름까지 착용하기에 부담이 없다.

재킷이 부담되면 리넨 소재의 셔츠도 주목할 만하다. 리넨 셔츠는 깔끔하게 격식을 갖출 수 있으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풍겨 연령층에 관계없이 사랑받는 아이템이다.

시원한 소재와 색감이 어우러진 푸른 색 계열의 리넨 셔츠는 답답한 사무실에서 청량하고 상쾌한 분위기의 오피스 룩으로 활용하기 좋다.

여름 소재의 옷으로 스타일 감각을 뽐내고 싶은 여성들은 면 소재에 러플 장식이 가미된 블라우스가 제격이다. 면 블라우스는 오피스 룩으로도 좋고 일상 외출 시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다. 쉬폰 소재의 스커트는 소재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로맨틱한 분위기 연출에 도움이 된다.

쿨링 소재를 포함한 다양한 기능성 소재가 접목된 스포츠 피케 셔츠도 여름철 쿨비즈 룩으로 손색이 없다.

가벼우면서도 시원한 나일론 원단의 냉감 티셔츠는 시원한 착용감을 유지하는 데 탁월하다. UV 차단 기능성 소재가 가미된 제품은 강렬한 여름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어 유용하다.

/김학철기자

"월드컵은 좋지만, 더위는 싫다"

온라인몰에서 무더위 식혀주는 'COOL 응원룩' 인기

13일 개막되는 브라질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월드컵 열기가 점차 가열되는 가운데 이번 브라질 월드컵 경기가 대부분 늦은 새벽에 치러지기 때문에 대규모 길거리 응원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영향으로 화려하고 이색적인 응원용품보다 월드컵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이 인기다.

실제로 옥션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최근 2주간 동안 월드컵 응원용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70% 늘었다. 각양각색의 응원용품 중에서도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패션 제품이 주목 받고 있다. '붉은악마 티셔츠'는 쿨폴리원단을 사용해 통기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땀과 수분의 빠른 흡수와 건조를 도와줘 쾌적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고 편한 쪼리·슬리퍼가 인기로 같은 기간 판매율이 39% 증가했다. 월드컵 시즌에 맞춰 인기 있는 제품으로 '월드컵쪼리'가 있다. 남녀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붉은 악마의 상징인 빨간색 컬러를 사용했으며 더러워졌을 경우 간편하게 물빨래 할 수 있어 관리도 쉽다.

또 시원한 월드컵 응원룩의 정점을 찍어줄 '월드컵 아이스 머플러'는 면 100%에 안감을 특수 소재로 제작해 냉기지속시간이 두배나 길다. 사용방법은 일반적인 가정용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고 얼려서 간편하게 두르고 사용하면 된다.

응원의 재미를 더해주는 다양한 응원 도구들도 있다. '붉은 악마 피리부채'는 붉은 악마의 상징인 치우 천왕의 얼굴이 그려져 월드컵 응원과 동시에 부채로도 할 수 있다. 여기에 부채 손잡이 끝에 피리가 장착돼 소리나는 응원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제품이다.

/정현심기자 srmell

11번가, 온라인쇼핑몰 1위 등극

국내 사이트 중 사상 첫 전체 4위 올라

SK플래닛 오픈마켓 11번가가 온라인몰 1위에 올랐다고 11일 밝혔다.

11번가는 이날 지난 5월 한 달간 코리안클릭 순위 집계에서 온라인몰 중 순방문자수 1위(전체 사이트 중 4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국내 사이트 중 11번가는 네이버·다음·티스토리에 이어 방문자가 많았다. 11번가가 전체 인터넷사이트 중 순방문자 수 4위에 오른 것은 2008년 2월 론칭 이후 처음이다.

회사 측은 5월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전월 대비 10만명 넘게 11번가를 찾아 5월 한 달간 총 순방문자 수는 1330만명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40%가 넘는 도달률을 기록하며 인터넷 사용자 10명 중 4명이 11번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11번가는 소비자에게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쿠폰 행사로 5월초 연휴기간에만 100억원 이상 거래액을 견인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롯데닷컴 등 대형 유통사와의 제휴로 상품 경쟁력을 높여 고객 유입을 증대시켰다는 평가다.

11번가 박준영 마케팅 실장은 "모바일쇼핑 1위 리더십을 견고하게 이어가고 있는 데다 인터넷 쇼핑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사회적 이슈로 힘든 상황에서 이룬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정현심기자

'1인 출판시대'… 나만의 책 만들어볼까

개인이 손쉽게 제작 과정 직접 관리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이름을 내건 책을 출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복잡한 절차와 만만치 않은 비용으로 그 꿈을 실현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1인 출판 서비스 등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도 콘텐츠 구성·편집·제작·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출판 과정을 개인이 직접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한정호 퍽스 기획팀 차장은 "소장·선물용 포토북과 실제 수익 창출을 돕는 전자책과 종이책 발간까지 1인 출판 서비스를 이용해 나만의 책을 손쉽게 만들어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가출판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토북은 추억을 간직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디지털카메라·사진인화기업 퍽스의 디카북 제작 서비스는 본인이 찍은 디지털 사진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레시피 북이나 여행포토북, 여행사진을 삽입한 에세이 북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양한 레이아웃과 스티커 등이 들어 있는 편집 기능은 초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동영상·음악링크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삽입 가능하다.

또 최근 네이버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네이버 포스트를 론칭했다. 이 서비스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슬로건 하에 사진·에세이·연애·심리테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PC에서 쉽게 만들고 모바일 스토리북으로 제작·공유하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다. 네이버 회원이라면 누구나 PC포스트 에디터 기능을 활용해 블로그처럼 쉽게 제작할 수 있다.

소장용이나 선물용 책을 넘어 자신이 쓴 책을 전자책·종이책으로 유통하고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돕는 서비스도 있다. 교보문고 퍼플은 개인이 자신의 서적물을 e-book과 종이책으로 제작해 실제 판매수익까지 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간된 책은 교보문고의 유통망을 통해 웹사이트뿐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의 교보 e북 앱, 제휴 채널 등에서 판매된다.

전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 전자책 전문기업 북팔은 웹 소설 분야에서 아마추어 작가를 발굴해 책을 출판하는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사이트에 20회 이상 등록된 콘텐츠는 네이버 북스에 연재해 미리보기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혜인 기자 hjuns0404@metroseoul.co.kr

미세먼지 덕분 '식물 시장' 쑥쑥

공기정화·조경 효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올해는 연초부터 찾아온 미세먼지와 5월 하순까지 발생한 황사 때문에 공기 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관련 제품과 생활가전 매출이 늘어난 데다 식물 시장까지 활황하고 있다.

이전에는 식물을 주로 관상용으로 키워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식물의 뿌리에 있는 미생물이 공기중의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효과가 알려지면서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홈가드닝족' '베란다텃밭족'과 같은 새로운 소비자 층이 생겨났을 정도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원예 대전을 통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이마트의 경우 올해 1분기 원예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66% 이상 신장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유통 업체들이 실내에서 쉽게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원예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식물을 통해 공기정화와 조경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인테리어 제품들도 출시하고 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공기정화식물과 청정기를 결합한 복합녹화 시스템인 '바이오 월(Bio wall)'을 개발해 여름철 건물 안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제시했다. 또 하츠는 식물을 벽에 식재해 실내의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물질을 정화하고 습도 조절과 산소를 발생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주는 인테리어용 수직녹화 시스템 '버티컬 에어가든'을 선보이기도 했다.

강진용 하츠 영업본부 영업관리팀 팀장은 "지난 4월 기준 하츠의 버티컬 에어가든 판매 실적이 전월 대비 10배나 늘었다"며 "황사와 미세 먼지에 시시사철 노출되면서 공기정화용 식물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공기정화를 위한 식물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 실내에서 키우기에 적합한 식물의 종류는 생각보다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실이나 사무실 등 좁은 공간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선택하도록 한다. 남천·돈나무 등은 포름알데히드를 제거하며 골든포토스는 일산화탄소를 없애고 음이온을 발생시켜 실내 공기정화식물로 적합하다.

/정혜인 기자

사소한 습관이 '머리숱' 좌우한다

출근길 젖은 상태는 '지루성두피' 유발

흔히 탈모는 유전적 요인인 호르몬 문제가 주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엔 환경 요소와 잘못된 생활습관이 두피문제와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번 시작된 탈모를 처음처럼 되돌리는 것은 힘들지만 탈모의 진행 상태를 조절하는 것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유전성 탈모 역시 두피와 모발을 제대로 관리해주면 최소화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출근길에 젖은 머리를 방치한 채 길을 나서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습관은 '지루성두피'라고도 불리는 '두피지루성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에 젖은 머리를 방치하면 비듬균이나 세균이 증식되고 가려기가 덮여 두피가 점차 약해지는 이 질환을 가속화시키고 심할 경우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

머리를 감고 난 후에는 헤어드라이어의 차가운 바람을 이용해 두피부터 완전 건조시킨 후 외출하는 것이 좋다.

/김계림 기자 kimkr@

metro entertainment

'여전히 뜨겁게' 내놓은

백지영

한층 깊어진 감성 보이스
새로운 공연 콘셉트 뭔해

"제가 감동받지 않으면 안 불러요"

한층 더 깊어진 감성 보이스로 돌아왔다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38)이 1년 4개월 만에 '여전히 뜨겁게'로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앨범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만난 백지영은 무대 위에서 서정적이고 애절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과 달랐다. 특유의 솔직함과 호탕함으로 상대방까지 유쾌하게 만들었다.

/탕썸은기자 ysw@metroseoul.co.kr 디자인/황승아

◆ 믿고 듣는 가수

백지영은 이제 '믿고 듣는 가수' 반열에 올랐다. 그가 부른 노래는 마치 약속이나 한듯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며 열풍을 일으켰다. '총 맞은 것처럼' '오늘도 사랑해' '내사' '사랑 안 해' '내 귀에 캔디' '부담' 등 셀 수 없는 히트곡을 남겼다. '여전히 뜨겁게' 역시 공개와 동시에 음원차트 1위에 오르는 등 명불허전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만들었다.

백지영은 "주변에서 믿고 듣는 가수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기분은 좋지만 부담감은 커졌다"며 "일단 노래를 다운받고 듣기 때문에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웃음 옆었다.

백지영이 노래를 선경하는 기준은 확고했다. "곡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감성을 터치하는 곡을 찾아요. 노래를 듣고 제 자신이 감동받지 않으면 부르지 않죠. 이번 앨범에서도 내가 불렀을 때 무언가 감성을 확 터치해주는 곡을 담고 싶었어요. '여전히 뜨겁게'는 가사도 잘 나왔고 완성도도 좋았어요. 눈을 감고 들었는데 영상이 스쳐 지나갔어요. 덕분에 노래를 부르는데 편안하게 감정을 담아낼 수 있었어요."

◆ 싱글에 대한 아쉬움

백지영이 방송활동을 시작해 팬에겐 좋은 선물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오랜만에 나온 이번 싱글은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백지영의 정규앨범은 지난 2011년 5월 발매된 8집 '피타'를 마지막으로 3년 동안 신보가 나오지 않았다. 싱글 앨범과 드라마 OST에 참여하며 갈증을 풀어줬다.

백지영은 "미니와 정규 앨범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다"며 "정규앨범 제작에 1년은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니나 정규는 일단 작업기간이 길어야하는데 원래 내가 작업 속도가 더딘 편"이라며 "물론 정규앨범의 발매 생각은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딱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나. 그러니까 10집까지 나올 거다"라고 약속했다.

◆ 마돈나 공연서 영감 얻어

백지영은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다. 15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팬들을 위해 그는 9월20일을 시작으로 전국 4개 도시를 순회하는 투어 콘서트를 계획 중에 있다.

이번 콘서트에 대해 그는 "콘서트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계획은 아직 회의 중"이라며 "개인적으로 예전에 일본에 프로모션 갔을 때 음반을 구입한 사람들을 초대해 소규모로 콘서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이번 투어의 첫 공연은 이미 대규모 공연으로 정해졌지만 만약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꼭 소극장 콘서트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마돈나가 공연에서 '보그'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욕심이 생겼다"며 "같은 곡이지만 전에 다른 느낌이 났다. 중세시대, 인도 분위기, 댄스&발라드 등 콘서트가 전부 달랐다. 제 노래 중에도 대중들이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편곡해서 들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사랑은 끝나고 감정만 남았다"

LOVE
PAWNSHOP

tcast

배우 - 가수 경계 사라진다

아이돌 가수 음악·연기·MC 멀티플레이 배우들은 OST·앨범·콘서트서 끼 발휘

최근 연예계의 흐름을 보면 배우와 가수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다양한 끼를 갖추고 있는 아이돌 가수들이 연기는 물론 MC에 도전하며 멀티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배우들도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자신의 이름으로 앨범을 발매하고 콘서트를 갖고 있다.

드라마 '상속자들'로 인기 정점을 찍은 박신혜는 11일 신곡 '마이 디어(부제 꿈)'를 발표했다. 올해 초에 발표한 '별에게'에 이어 신곡 '디어 디어'로 달콤한 목소리를 선사한다.

박신혜는 그동안 드라마 '미남이시네요', '넌 내게 반했어', 최근 '상속자들'까지 출연하는 작품마다 OST에 참여해 캐릭터의 마음을 대변하며 풍부한 감성과 탄탄한 보컬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배우 김수현도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김수현은 화제작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OST '너의 집 앞'을 불러 주목받았다. 당시 '너의 집 앞'은 공개와 동시에 10개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김수현은 2011년 1월 방영된 '드림하이 시즌1'에서도 OST에 참여해 '드리밍'을 불렀다. 2012년 1월에 방영된 '해를 품은 달' OST에도 참여해 남다른 가창력을 선보인바 있다. 특히 김수현은 팬미팅도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배우 소지섭은 힙합 음반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소속사는 "소지섭이 6월 중 힙합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소지섭은 유명 래퍼인 소울다이브와 함께 3~4곡 정도의 녹음을 마친 상태다.

소지섭은 앨범을 발매한 이후 아시아 투어도 계획하고 있다. 28일 대만을 시작으로 다음달 18일 일본 고베, 21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팬미팅을 열 계획이다.

소지섭은 지난 2008년 디지털 싱글 '자'로 래퍼로 변신. 2011년 2월 힙합 앨범 'picnic'(가제)을 발매했다. 이후 2012년 3월 발라드와 힙합이 섞인 앨범 '북쪽왕관자리', 지난해 1월 '6시', '운동장'을 발매하며 꾸준히 앨범을 냈다.

/장병호기자 view@metroseoul.co.kr

엑스맨 신작 400만 돌파

할리우드 SF 블록버스터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사진)가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개봉된 이 영화의 누적 관객 수는 10일까지 400만344명을 기록했다. 10일 하루 동안 2만374명의 관객을 모아 일일 박스오피스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엑스맨' 시리즈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2011년)의 종전 기록 253만3652명을 훨씬 앞선 수치다.

'엑스맨' 신작은 사상 최강의 적이자 인류를 위협할 강력한 무기 센티널에 맞서기 위해 과거와 미래의 엑스맨이 모두 모여 전쟁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았다.

휴 잭맨·제임스 맥어보이·마이클 패스벤더·제니퍼 로렌스·할리 베리·엘렌 페이지·이안 맥켈런·패트릭 스튜어트 등이 출연했다. /조현희기자

'워킹걸'의 클라라(왼쪽)와 조여정 /씨너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조여정·클라라의 '19금' 로코

영화 워킹걸 크랭크업

조여정·클라라 주연의 19금 로맨틱코미디 '워킹걸'의 촬영이 마무리됐다.

배급사 씨너스엔터테인먼트는 "'워킹걸'이 8일 약 3개월간의 촬영을 마치고 경기도 양수리 세트장에서 크랭크업 했다"고 밝혔다.

'워킹걸'은 장난감 회사의 최고 유망주인 보희(조여정)가 승진을 앞둔 발표에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해고를 당한 후 난희(클라라)와 함께 성인 용품 사업에 뛰어들며 일과 가족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를 담은 코미디물이다.

이른 아침 시작된 마지막 촬영은 두 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기업 박람회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지만 여러 가지 난관을 겪는 장면으로 끝났다.

배급사는 "수 개월간 현장에서 돈독한 우정을 나누며 정을 쌓아온 배우들이 아쉬움에 쉽게 발을 떼지 못했다. 동고동락한 스태프들에게 일일이 고마움과 아쉬움의 인사를 전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고 마지막 현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올 하반기 개봉될 '워킹걸'에는 조여정과 클라라를 비롯해 김태우·김보연·라미란이 출연한다. /조현희기자

과거 여행하는 여름 안방

정통 '끝없는 사랑' ~ 퓨전 '조선 총잡이' '야경꾼일지'

올 여름 안방에선 시대극 경쟁이 벌어진다. 현대사를 조명한 정통 시대극부터 조선시대를 젊은 감각으로 재구성한 퓨전 극까지 다양하다.

SBS 새 주말극 '끝없는 사랑'은 70년대부터 80~9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를 배경으로 한다. 현대사를 치열하게 살아 온 주인공들의 꿈과 야망, 사랑을 다룬다.

'엔젤아이즈'의 후속작으로 오는 21일 첫 방송된다. 배우 황정음, 정경호, 류수영 등이 출연하며 '여명의 세월'(1990) '에덴의 동쪽'(2008) 등을 쓴 나연숙 작가가 참여했다.

황정음은 야생마와 같은 여인 서인애 역을 맡았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한 뒤 복수를 다짐한다. 정경호는 부산 최고의 문제아에서 이름 있는 사업가로 성공하는 한광철을 연기한다. 류수영은 어릴 때부터 일등만 한 수재며 위대한 지도자를 꿈꾸는 냉혈한 한광훈 역으로 분했다.

KBS는 새 수목극 '조선 총잡이'를 편성했다. 작품은 조선의 마지막 칼잡이가 총잡이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감성 액션 로맨스물이다.

배우 이준기와 남상미가 MBC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 후 7년 만에 재회했다. 이준기는 개화기에 칼을 버리고 총을 잡아야만 했던 조선의 마지막 검객 박윤강을 연기한다. 남상미는 호기심 많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수인 역을 맡았다. 그는 "조선시대 규율과 법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려는 캐릭터에 매력을 느꼈다"고 출연 배경을 전했다. 오는 25일 '골든 크로스' 후속으로 첫 방송된다.

MBC는 새 월화극 '야경꾼일지'를 내달 말 방송한다. 조선을 배경으로 귀신을 부정하는 자와 이용하려는 자, 물리치려는 자의 이야기를 담은 판타지물이다.

정일우와 신인 배우 고성희, 그룹 동방신기의 정윤호가 삼각 로맨스를 연기한다. 정일우가 맡은 이린 역은 예술적 감각을 타고난 불량한 왕자다. 귀신을 보는 능력이 생겨 백두산 소녀 도하와 귀신을 퇴치하고 백성의 삶을 돌아보는 인물로 성장한다. 고성희는 백두산을 지키는 마고족의 후계자, 도하를 연기한다. 부족의 운명을 책임지기 위해 야경꾼을 찾으러 한양에 왔다가 이린과 무석을 만난다. 무석 역은 정윤호가 맡았다. 이런 왕자를 보위하는 조선 최고의 검술 실력을 지닌 무관이며 싸늘한 성격을 지녔다.

/전효진기자 jeonhj@

KBS2 새 수목극 '조선총잡이' 이준기, 남상미

SBS 새 주말극 '끝없는 사랑' 황정음

사연 주인공의 VCR을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는 연애전당포 MC들. 왼쪽부터 닥터 얼, 권희, 제이, 정형돈, 나르샤, 윤한, 김그림. /손진영 기자 son@

‘썸’ 홍수 속 나홀로 ‘이별’ 외치다

E채널 ‘연애전당포’ 녹화현장 엿보니 스타들의 솔직 연애 경험담이 줄줄이…

연애상담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 이별만을 다룬 독특한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E채널 '연애전당포'는 사랑의 오작교가 아닌 '사랑과 전쟁'에 더 가깝다. 최근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연애전당포' 스튜디오에서 2·3회 녹화가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MC 정형돈과 제아, 권희, 김그림, 피아니스트 윤한, 연애심리상담가 닥터 얼, 그리고 아나운서 김경란을 대신해 일일 안방마님 나르샤가 함께했다.

◆ 쉴없이 쏟아지는 '말말말'

'연애전당포'는 7명의 MC가 둘러앉아 시청자의 사연을 담은 VCR을 본 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녹화에 등장한 '두 얼굴의 여자친구' 사연을 들은 MC들은 경악했다. 권희는 "이런 애는 신상 털어서 다시는 연애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소리치며 큐시트를 집어던졌다. 나르샤 역시 "저 여자분 정말 악질이다"라고 말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정형돈은 "이런 건 고민할 필요도 없다"며 모든 패널들은 헤어질 것을 권유했다.

모두가 흥분에 휩싸여 "헤어져"라고 외칠 때 홀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이가 있다. 바로 닥터 얼이다. 그는 "다른 프로그램이 남녀 갈등 구도만 그리거나 이성을 유혹하는 노하우만 알려주고 있다"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남녀사이가 아닌 실질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녹화에 제작진은 "쉬었다 가자"고 제안했지만 정형돈은 "이제 입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왜 쉬느냐"며 계속하길 요구했다. 그는 "토크쇼는 흐름이 중요하니까 재밌을 땐 쭉 이어 가는 게 좋다"며 "반대로 잘 안 풀릴 땐 역으로 끊었다 가기도 한다"고 밝혔다.

◆ 이별 상담은 우리에게 맡겨라

정형돈(36 개그맨·유부남)

"이별이라는 아픔을 이야기 하려니 조심스러워요. 녹화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괜찮았으면 좋겠네요."

제아(33 가수·언니 담당)

실제 사연 주인공이 촬영된 VCR. 여자친구에게 선물받은 옷을 전당포에 맡기고 있다

'이 사연 진짜 아니다.' 스튜디오 뒤쪽에는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부조정실이 있다. 이곳에서도 이별 사연을 들으며 몰래 고민한다

"평소 친구의 연애 상담을 많이 해줘요. 수다 떠는 마음으로 다뤘는데 돈도 버니 일거양득이네요. 제가 웃음이 터지면 옆 사람을 때리는 버릇이 있는데 오늘 권희씨 옆에 멍들었을 것 같아 미안하네요."

윤한(31 피아니스트·훈남)

"제가 훈남인 척 한다고요? 아녜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나쁜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김그림(27 가수·쑥맥)

"제가 나이에 비해 연애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별 상담을 해?'라고 생각했죠. 근데 친구 만나면 고민 상담 해주잖아요. 그래서 방송도 진짜 친구에게 조언 해준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권희(26 가수·비밀연애전문가)

"전 20대 남성들의 마음을 대변해요. 요즘 연애 스타일을 제가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연애전당포'에서 제 경험을 많이 털어놓는데 회사에선 제 연애 경험을 잘 모르거든요. 혼날까봐 걱정이에요."

닥터 얼(35·심리상담가·배운 사람)

"김 기자님도 연애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 추억 깃든 물건, 버리지 마세요

연인과의 이별을 고민하는 사연 주인공들은 모두 연인에게 받은 선물이나 추억의 물건을 가지고 전당포를 찾아야 한다. 주인 할아버지는 "차였어요? 찼어요?"라고 질문한 뒤 사연을 듣고 물건의 가격을 정한다.

방송에 등장하는 전당포는 실제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데 두 형제 할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다. '연애전당포' 관계자는 옛날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는 전당포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다고 한다. 수소문 끝에 찾은 이 곳은 영화 '아저씨'에 등장할 뻔한, 철망이 여전히 남아있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었다.

관계자는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연기자가 아닌 전당포 주인 할아버지를 캐스팅했지만 첫 녹화 직전 '방송울렁증'이 생긴 할아버지는 '못하겠다'며 자신의 형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울렁증은 오래가지 않았다. 두 할아버지 모두 젊은이들의 연애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방송에 나란히 출연하기 시작했다. 주인 할아버지들의 어색한 연기는 '연애전당포'를 더욱 재밌게 만드는 요소다.

이별과 상관없이 물건은 주인이 다시 찾아갈 수도, 맡겨둔 채 두고 갈 수도 있다. 관계자는 전당포에 물건이 많이 쌓이게 되면 프리마켓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품 코트부터 신발, 향수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쌓여가는 '연애전당포'에 관심있다면 언제든 문을 두들겨 보라.

/김지민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수박껍질은 세계의 반찬…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수박껍질은 훌륭한 반찬이다. 고추장 양념과 참기름, 식초 등으로 조물조물 무치면 수박 향기와 아삭아삭한 식감이 어울려져 여름철 입맛을 자극하는 수박나물이 된다.

수박 나물은 보통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껍질마저 버리기 아까워 나물로 무쳤을 것 같지만 사실 역사와 전통이 꽤 깊은 음식이다. 그것도 우리나라는 물론 동양과 서양에서 모두 즐겨 먹었다.

우리는 진작부터 수박껍질을 반찬으로 이용했는데 19세기 중반의 실학자 이규경은 사람들이 보통 수박껍질을 술모였다고 버리는데 항아리에 담아 장을 담그면 무김치처럼 좋은 반찬이 된다고 했다. 조선 후기에 수박 나물을 반찬으로 먹었다는 이야기다.

중국은 진작부터 수박껍질을 음식으로 활용했다. 명나라 때 의학서인 본초강목에는 수박껍질이 약재로 실려 있는데 껍질 역시 수박처럼 열을 식히고 갈증을 멎게 하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고 나온다. 이렇게 약효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지 중국에는 수박껍질을 재료로 만드는 음식이 적지 않다. 돼지고기와 버섯, 수박껍질을 섞어서 볶기도 하고 우리처럼 무치기도 하며 때로는 김치처럼 절여서도 먹는다.

서양에서도 진작부터 수박껍질을 요리에 활용했다. 오이를 식초에 절인 오이 피클처럼 수박껍질로도 피클을 담는다. 예전 미국 남부에서 흑인 요리사들이 발달시킨 음식이라고 한다. 미국의 수박껍질 피클은 19세기 초반의 요리책에도 실려 있으니 문헌에 실린 시기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빠르다.

19세기 후반인 1881년 발간된 「남부의 옛날 요리」라는 책에도 수박껍질로 피클 만드는 법이 실려 있다. 노예출신인 피셔부인이 구술했다는 식으로 흑인이 쓴 최초 요리책으로 알려져 있다.

싱클한 수박나물이 우리뿐 아니라 중국과 서양에도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게다가 19세기 이전의 옛날부터 먹었다는 사실도 의외다. 요즘 과일가게에 수박이 많이 보인다. 먹고 난 껍질도 재활용하면 입맛을 북돋울 수 있다. /음식문화평론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하나씩 들어가야 합니다

			7		8	6		4
	9	5				1		
			5			3		
4	8	9						
1			6		5			8
						4	1	7
		1			3			
		4				2	3	
3		6	9		2			

	5	1	4					
		2	1				9	
4	8				6	1		
		7		6				
6	3			4			2	8
				7		4		
		5	6				4	3
	9				4	8		
					3	9	5	

스도쿠 정답

[illegible]

문제 제공 - 보누스
『연사 스도쿠 라이타드』 (아이플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회사원인데 생수사업 생각 중 시기 안맞아 다른계획 세워요

복사꽃 남자 80년 2월 26일 유시 출생

Q 35세 된 남자로 2월 26일 양력 미명에 생을 받았니다. 사주 속으로 를 보면서 지인들의 사정을 듣고 제가 멘토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제 친구의 아들인데 지금은 보안 관계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향 친구와 함께 생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A 일순이 띠면서 봄날에 태어나 봉사(奉仕) 누리는 의 형상으로 머리가 특출하지만 주변이 부족합니다. 2017년까지는 한곳에 안주하기가 힘들어 정착하려는 의사가 없을 것입니다. 장점으로 겉으로는 온순하지만 내면으로는 깐깐 강한 원의 기운이 왕성하여 고집이 세고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기에 아무만 먹으면 해낼 수 있으나 시기적으로 맞물리지 않으니 다른 계획을 세우십시오. 부연설명을 한다면 나쁜관살 우물에 빠짐으로 물로 인한 재난을 특별히 조심해야 하니 건강상 신장계통에 유의하고 익수지환(溺水之患)으로 인한 재난 당함을 나타냄으로 직업상으로 생수업종이니 혹 수 수산업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정년퇴직 재취업 기회 있을까 농사일 배우면 좋은결실 있어

백두산산 남자 51년생 10월 19일 밤 9시

Q 정보 수사 계통에서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아직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시켜 좋을 마음도 있으나 저처럼 평생을 조직 속에서 지내던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 마땅히 재취업을 할 수도 없는 형편이라 답답합니다. 뭐를 해야 좋을까요.

A 규칙적인 생활을 해보았으니 농업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농사는 계획의 위도 없으면 틀 잃으나 일단은 계획과 투자관찰이하는 직업이며 수(水)기운이 사주에 작용하고 있으므로 자연에서도 도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게다가 자립정신이 강하며 2016년 지나면서 다시 전성기가 오니 1~3년 교육을 통하여 실력을 받고 어떤 작물이 맞는가를 설정하여 평생 직업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2015년은 천리지망살(天羅地網殺)에 구설수가 따르니 사비 송사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돈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땅을 사서 사라는 하자는 사람이 다가올 터이니 말을 만들지 말고 어떤 일이든 자간에 항상 다시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12일 (음 5월 15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 **48년생** 마음을 비우면 편안하다. **60년생** 문서 일은 일단 관망만 할 것. **72년생** 남의 잔치 구경만 하자니 답답하다. **84년생** 일이 꼬이면 생각을 과감히 바꿔라.

소 — **49년생** 대접받으려면 주장을 굽혀라. **61년생** 자랑하자는 큰 탈감이 생긴다. **73년생** 따질 일이 있으면 확실히 따져라. **85년생** 정보통신에 현혹되면 후회한다.

호랑이 — **50년생** 허전한데 벗이 찾아온다. **62년생** 뜻밖의 공돈이 생겨 이호~ **74년생** 뛰는 아이디어로 새바람을 일으킨다. **86년생** 꿈틀인 길은 꽃이 활짝 피는구나.

토끼 — **51년생** 매매와 관련된 일은 미뤄라. **63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75년생** 으스대지도 궁실거리지도 말라. **87년생** 자신 있어도 능력 밖의 일은 멈추는 게 이롭다.

용 — **52년생** 인연인 사람이 기대에 부응한다. **64년생** 진한일은 가족과 의견 맞대라. **76년생** 무슨 일이든 막 나가면 역풍 맞는다. **88년생** 해답은 가까운 곳에서 찾아라.

뱀 — **53년생** 생각도 못한 실수 조심~ **65년생** 예사롭지 않는 귀인을 만난다. **77년생** 달콤한 동업제안은 정중히 거절할 것. **89년생** 인간은 닮아간다는 말에 행복하다.

말 — **42년생** 오라는 곳이 많아 바쁘다. **54년생**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라. **66년생** 방심하면 그렇게 속고도 또 당한다. **78년생** 운기 흐름이 좋으니 적극 움직여라.

양 — **43년생** 아랫사람 실수 모른 척 할 것. **55년생** 희소식이 들려온다. **67년생** 얼치기 전문가 허풍에 놀아나지 않도록 조심~ **79년생** 심장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이다.

원숭이 — **44년생** 꿈틀인 일은 결실 맺는다. **56년생** 욕심이 나도 능력 밖의 일은 금물~ **68년생** 어려움이 많을수록 위험도 크니. **80년생** 공적인 자리서 스마트폰으로 딴짓 말라.

닭 — **45년생** 상황이 바뀌어도 평소대로 하라. **57년생** 투자한 곳에서 이득이 발생한다. **69년생** 입신수가 예상되니 언행 신중할 것. **81년생** 뜻을 이루려면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개 — **46년생** 남의 말로 하루 해를 비틀진다. **58년생** 친구도 가려서 믿어라. **70년생** 계약 일은 엉뚱한 변수로 일이 꼬인다. **82년생** 웃어야 복이 오니 웃어라~

돼지 — **47년생** 검기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59년생** 혹과 박 나무 따지면 모두가 피곤하다. **71년생** 배우자 때문에 마음 상해도 참아라. **83년생** 내일을 생각하며 움직이야 한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 모습 /연합뉴스

기적을 향해! 결전의 땅 입성

월드컵 대표팀 브라질 도착 평가전 부진 털고 실전 준비

홍명보호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훈련의 마침표를 찍고 결전의 땅 브라질에 입성했다.

홍명보호는 11일 마이애미 국제공항을 출발해 브라질 상파울루를 거쳐 전지훈련 캠프지인 도스 두 이구아수에 도착했다. 대표팀은 12일 오전 5시 이구아수 캠프의 전용 훈련장인 플라멩구 스타디움에서 첫 공개 훈련을 시작했다.

가나전 패배로 팀 분위기가 침체되는 듯 보였지만 그래도 어린 선수들이어서 그런지 빠르게 회복됐다. 이날 선수들은 밝은 모습으로 훈련에 임했다. 패배에 주눅들지 않았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밝은 분위기도 아니었다. 차분하지만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앞서 홍명보호는 브라질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지난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 마지막 평가전에서 0-4로 완패하며 전지훈련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은 전지훈련의 성과에 대해 "선수들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며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훈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선수들의 몸 상태는 90% 이상 올라왔다"며 "지난달 28일 튀니지 평가전을 앞두고 실시하지 않았던 인터벌 트레이닝 훈련 등 다양한 보강 훈련으로 선수들의 상태가 좋아졌다"고 자신했다.

결전의 땅 브라질에서 홍명보호가 평가전에서 드러난 공·수 조직력 약점을 보완하고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는 18일 오전 7시 쿠이아바에서 러시아와 H조 첫 대결을 가진다.

/한용섭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월드컵 이모저모

◆ 골라인 오심 사라지나

2014 브라질월드컵에 처음으로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골라인 판정 기술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브라질의 월드컵 경기장 12곳에 골라인 통과 여부를 판정하는 첨단 카메라 14대를 설치했다. 이 카메라는 초당 500회의 속도로 공의 움직임을 촬영한다. 촬영된 결과를 컴퓨터로 전송할 경우 심판이 착용한 손목시계에서 진동과 함께 '골'이라는 메시지가 뜬다. 공이 골라인을 넘은 직후 컴퓨터 분석을 통한 골 판정은 1초 이내에 가려진다.

시스템 제조업체는 "월드컵에 대비해 2400번의 시뮬레이션을 오류 없이 거쳤다"고 밝혔다.

◆ 홍명보호 숙소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숙소가 공개됐다. 바로 버번 카타라타스 컨벤션 리조트(버번 호텔·위 사진)다.

버번 호텔은 세계적인 명소인 이구아수 폭포에서 불과 12㎞ 떨어진 곳에 위치한 5성급 휴양 리조트다. 고급 호텔답게 태극전사들이 피로를 풀 수영장과 스파, 개인 훈련을 할 헬스장 등 편의시설이 완비돼있다. 홍명보호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시설도 미리 챙겼는데 지난 1월 전지훈련차 이곳을 미리 찾은 대표팀은 몇 가지 보완점을 제시했고 호텔측은 흔쾌히 이를 수락했다고 한다. 우선 한국 대표팀의 요구에 리넨하신 등 헬스장의 운동 기구를 대폭 확충했다. 또 40여 석 규모의 로비층 식당이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하의 대규모 연회장을 대표팀 전용 식사 장소로 내줬다.

여기에 2인 1실을 썼던 지난 전지훈련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선수들이 각각 방 하나 씩을 써 더 꿀맛같은 휴식을 맛볼 수 있게 됐다. 호텔 뒤쪽 수영장에는 히바우두, 호베르투 카를로스 등 축구 스타들이 훈련차 찾았니가 직접 족적을 남긴 풋프린팅 66점이 전시돼 있다.

◆ 세계적 모델 지젤 번천

월드컵 성적 만큼이나 축구 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게 또 있다. 바로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 모델 지젤 번천(아래)이 월드컵 우승 시상자로 선정되는가, 여부다.

브라질의 일간지 폴리 데 상파울루는 "FIFA가 번천을 오는 7월 13일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경기장에서 열리는 결승전에 초청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번천의 에이전트 파트리시아 번천은 "FIFA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포르투갈, 아일랜드 5-1 대파

호날두 복귀 막강 화력

포르투갈이 아일랜드를 꺾고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선전을 예고했다.

포르투갈 축구 대표팀은 11일 미국 뉴욕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일랜드와의 평가전에서 5-1로 승리했다.

부상으로 최근 2경기에 결장하며 월드컵 본선 출전 여부를 놓고 우려를 샀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오랜만에 그라운드를 밟은 것도 포르투갈에게는 큰 소득이었다.

호날두는 선발 출전해 65분간 뛰면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공격 흐름을 주도했고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골문을 때리는 등 절정의 기량을 보였다.

포르투갈은 전반 3분 우구 알메이다의 헤딩골로 기선을 잡았고 파비우 코엔트랑·알메이다·바에이라냐, 코엔트랑의 골이 차례로 터지면서 아일랜드를 압도했다.

독일·미국·가나와 함께 죽음의 조로 불리는 G조에 편성된 포르투갈은 최근 A매치 2연승과 함께 5경기 연속 무패(3승 2무)를 기록해 본선 활약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의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상대 수비진을 뚫고 있다. /USA투데이 연합뉴스

러시아 꺾을 땐 훌리건 조심

러시아 축구 대표팀. AP 연합뉴스

극성팬 500명 브라질행

브라질 현지 응원에 나서는 붉은 악마는 첫 경기에서 러시아 훌리건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인드레이 부다에프 브라질 주재 러시아 총영사는 이번 월드컵에 2만여 명의 러시아 팬들이 브라질을 찾을 것이라 전망하며 이 중 약 500명은 훌리건이라고 밝혔다고 모스크바 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러시아 훌리건은 영사관과 치안 당국의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폭력적인 팬으로 2012년 유럽축구선수권에서 벌인 소동으로 악명을 떨쳤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러시아와 폴란드의 조별리그 경기 전 러시아 팬과 폴란드 팬이 충돌해 180명이 체포되고 15명이 다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이들의 폭력성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러시아가 일본에 0-1로 지자 모스크바 시내에서 야외 응원을 하던 훌리건들은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차에 불을 지르는 등 2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치는 사고를 저질렀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18일 오전 7시 한국과의 첫 경기에서 이들의 과격한 본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부다에프 총영사는 러시아 팬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피하기 위해 브라질의 법과 문화를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11일

■ 광주

한화	010	000	100	2
KIA	022	110	30X	9

[illegible]

■ 사직

LG	000	001	000	1
롯데	000	101	02X	4

[illegible]